

#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5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거래고객  
(주)크래비스 황준현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염창동지점 거래고객  
(주)엘프프로페셔널 유영재 대표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안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04 신춘편지쇼 여는 글	64 굴뚝 타고 떠나는 여행
06 신춘편지쇼 심사평 최우수상	69 그날의 선택
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5년 45박의 여행 우수상	73 낡은 수건의 비밀 장려상
25 소록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78 나혜운과 김말숙
34 따라온 보따리 가작	83 후회 없는 인생 여행길
39 끝내고 싶지 않은 여행	87 그 때 너는...
44 여행지에서의 여행	손편지
48 60의 길목에서 소환해 낸 가슴 아픈 수학여행 입선	91 갯생
57 아빠와 파란 포터 여행	10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크라비스 황준현 대표
60 눈먼 우리 엄마, 빨간 립스틱 질게 바르던 날	10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엘프프로세서널 유영재 대표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세상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눈을 보고 말해요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5월 10일 발행인(취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정민, 신유정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경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여행



여성시대의 봄은 신춘편지쇼가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여성시대 신춘편지쇼는

올해로 **4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글제는 **‘여행’**.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도착한 응모작은 **2,500여 통**이나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스물한 편의 수상작**이 가려졌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 원과 상패,

우수상에는 상금 각 300만 원과 상패,

가작에는 상금 각 200만 원과 상패,

입선에는 상금 각 100만 원과 상패,

장려상에는 백화점 상품권 각 3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2024년 봄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영광의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2024 신춘편지쇼

심사평

## 나를 울린 글들

시인 나태주

지난해에 이어 MBC 라디오 여성시대 <2024년 신춘편지쇼> 응모작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감동적인 작품, 실감이 느껴지는 작품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아, 인생이란, 여행이란 이런 것이구나. 읽는 내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이웃들의 가지가지 사연에 많은 느낌표가 생겨났습니다.

주어진 주제가 '여행'인데 인생 그 자체를 여행으로 보고 누군가의 인생 일대기 내지는 자서전 같은 내용으로 쓰인 글이 있었고, 자기 인생의 한 갈피에 실제로 있었던 여행의 기억을 되살린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괜찮다 싶지만, 심사자는 후자를 더 좋은 쪽으로 보고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부터 후루룩하고 솟아오르는 격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글에 보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글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나 덕목은 감동입니다. 감동은 소통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질서이고 드디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느낌을 주었던 글의 제목을 적어볼까 합니다.

<소록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낡은 수건의 비밀> <눈먼 우리 엄마, 빨간 립스틱 질게 바르던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5년 45박의 여행> <끝내고 싶지 않은 여행>. 이상의 글이 나를 크게 울린 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도 좋았던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의 길목에서 소환해 낸 가슴 아픈 수학여행> <벨기에에서 낯선 그녀를 따라갔다> <태양과 모래의 나라에서> <그 애와 나랑의 무박 여행>.

이런 글들에서 느껴지는 것은 한결같이 내용의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은 솔직함에서 나옵니다. 거짓 없이 자기 경험을 고스란히 내어놓는 그 마음, 그 용기와 담백 앞에 독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다음은 문장의 완성도입니다. 아무래도 글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뒤편입니다. 비록 완미한 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두루 잘 갖춘 글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글이란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수련과 연습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투고자들도 여기서 용기를 잃지 말고 나도 이번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을 자 본 삼아 앞으로 더욱 자주, 열심히 글을 써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란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기의 내밀한 경험을 글로 쓰다 보면 자기 자신 그 당시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로부터 해방됨을 자주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글에는 기본적으로 치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부디 스스로 더욱 열심히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4 신춘편지쇼

심사평

# 마음의 응어리 풀어내기

교수 신계숙

여성시대 <2024 신춘편지쇼>에서 편지를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흔여덟 편의 편지가 내게로 배달되었다.

한 편 한 편 꺼낼 때마다 이번엔 무슨 사연일까 궁금했다. 읽어가면서 맞아! 맞아! 그땐 그랬었지라고 무릎을 치기도 했고 재미있어서 킁킁 웃기도 했다. 가슴 아픈 내용에는 잔한 느낌이 들면서 안타까웠고 부모님 이야기에는 몽클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했다.

이 깊고 묵직한 사연을 어찌 그리 혼자서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오셨을까. 한 분 한 분이 편지를 쓰신 것이지만 내용은 장원소설로 풀어야 할 만큼 진한 내용들이었다. 한편씩 공들여 읽을 때마다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편지라는 작품에 심취한 독자였다.



어니언스의 노래 중에 ‘편지’가 있다.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라는 내용인데 이상하게 편지 앞에서는 경건해지고 진실해진다.

편지를 쓰려면 펜을 들고 흰 종이에 생각을 적어야 하는데 무엇을 적으려면 적어 내려갈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써내려 가다가도 이게 아닌데 싶으면 다시 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 스스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니 내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데는 편지만한 게 없다는 게 ‘편지’에 대한 내 생각이다.

여성시대에서 올해도 신춘편지쇼를 열어 전국민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명석을 깔아주었는데 내년에는 더 큰 명석을 깔아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4 신춘편지쇼

심사평

## 고비 고비가 여행

시인 안도현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여행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신춘편지쇼에 응모한 편지들을 읽으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뼈아픈 경험들이 모두 여행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삶 자체가 여행이라는 표현은 그리 새로울 게 없지만 삶의 고비를 여행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종이 위에 적은 마음들이 고맙게 여겨진다.

삶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편지에 호감이 갔다. 묘사의 디테일은 공감의 영역을 확장한다. 더 자세히 대상을 바라보고, 더 꼼꼼하게 정황을 바라보는 편지에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편지지와 손글씨들을 이번 심사에서 만나게 된 것도 독특한 경험이었다. 컴퓨터 글쓰기가 거의 일반화된 때에 만난 손글씨들은 소중히 다뤄야 할 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2024 신춘편지쇼

심사평

## 위로를 받다

진행자 양희은

인생 역작인 드라마 48편을 이틀에 걸쳐 꼬박 앉아서 본 기분이 이  
럴까!

부모님 이야기가 많았다. 나 역시 올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며 엄마  
의 침대에 앉아 벽에 기댄 채 집중해서 읽었다.

우린 참 다양한 여행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감동이었  
다. 너무 몰입해 읽어서인지 머리가 빠근하지만 많은 위로를 받았다.  
역시 여성시대 당당이 분들은 하나같이 결이 고운 사람들이다.



허 름한 옷가지 몇 벌 챙겨 영남이가 영찬이의 자취방으로 들어간 때가 벌써 36년 세월이 흘렀다.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없이 연탄아궁이에 밥을 지어 먹어도 얼마나 행복했던지. 둘이 지은 가혼을 붙여둔 벽을 보고 우린 서로 엉덩이를 통통 쳐주며 깔깔 웃기도 잘했던 천상 닭살 부부였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뿐이다.’

이 문구는 둘이 지은 우리만의 굳은 언약이었고 벽에 붙은 반듯한 글자의 문장처럼 살았던 것 같다.

이름의 첫 자도 같고 생일의 끝자리인 13일이라는 숫자도 같은 영찬이는 영남이와 사는 동안 첫 마음이 그대로 변치 않은 순도 높은 99.9%의 사람이었다. 모자란 1%는 내가 혼자 밖에 나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때만큼은 뽀로통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말다툼을 해도 등을 돌리지 않고 잠을 잤다. 잠결에 손을 잡아주는 영찬이의 체온은 그대로 영남이의 행복이었다.

우리 부부의 인연의 시작은 지금의 큰형님 소개로 이뤄진 펜팔이었다. 형님과 나는 구로에 있는 남성 정장을 만드는 방직 공장 여공이었다.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인물도 좋고 무엇보다 참 인성이 바른 사람이라며 펜팔을 권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린 펜팔을 시작했고 펜팔로 마음을 나누다가 처음 가리봉동에서 만나게 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온 영찬이의 모습은 2 대 8 가르마가 조금 촌스럽기도 했지만 나를 보려고 매무새에 신경 썼다는 점에서 속으로 100점 만점에서 99.9점을 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리봉역에 3시간 먼저 도착해 일이 덜 끝난 나를 기다려주는 영찬이의 순정으로 이어졌다.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만났어도 영찬이는 촌스러운 건지 간이 남보다 작은 것인지 손 한 번 잡아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정갈하고 순박한 그가 좋았지만 한편 바보 같아 보였다.

그래서 변산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일부러 물웅덩이가 있는 곳을 건너야 하는 곳으로 영찬이를 유도했다. 그렇지만 눈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영찬이는 혼자 폴짝 뛰어 건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 손을 잡아 건너 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멀뚱거렸다. 속으로 저런 바보 천치 하면서 나는 애써 차려입고 나간 치마를 살짝 감아 말고 모처럼 신고 나간 하이힐을 신은 채 폴짝 뛰어 건넜다. 그때 구두 굽이 작신 부러지는 바람에 나는 숙맥 같은 영찬이 곁에 굽이 부러진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나란히 맨발로 걸어 다녔다. 그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영찬이가 바보 아니면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두어 달이 지난 뒤 영찬이와 나는 대전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2년이 넘도록 손 한 번 잡지 못했던 영찬이가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다.

“저 저기요 궁게이… 오늘이 우덜이 처음으로 여행 온 날이잖아요. 궁게 그거시 특별허다든 특별한 것잉게요. 그 거시기 기념사진 한 장은 찍어야 안 쓰것소이…”

이렇게 더듬거리더니 덤석 내 손을 잡고 “뛰어!”라고 외쳤다. 얼굴에 나는 영찬이의 손을 잡고 사진관에 가게 되었다. 그날 처음으로 오매

불망 기다리던 영찬이의 체온이 손에 닿는 희열을 경험했다. 사진관에 도착하자마자 영찬이는 다시 더듬거렸다.

“궁게요 우리가 처음으로 여그 대전으로 여행을 왔는디요. 기… 기념비적으로다가 사진을 한 장 박아야 쓸 것 같아서 왔는디요. 잘 좀 찍어주세요.”

사진사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영찬이의 말에 대꾸했다.

“잘 찍어드릴 테니 걱정 말고 머리랑 얼굴 서로 다듬어줘 봐요들. 그리고 저기 의자에 다정하게 앉아요.”

이렇게 말한 사진사 아저씨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 저기 남자분이 왜 마른 장작같이 뻗뻗하고 멀뻗해요. 기왕 좋은 사람하고 찍는 사진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게 좀 더 뽀짝 붙어서 여자분 손등에 손도 다정스레 올려보고요. 아, 조금 더 붙으랴게요. 자, 얼굴도 조금 더 붙이고요.”

연신 사진사 아저씨는 어색하기 그지없는 주문을 했고 우린 그날 사진을 찍느라고 여태 잡아보지 못했던 손을 원 없이 잡고 얼굴도 비비며 한껏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때 손을 잡긴 했지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다시 속이 탔다.

우리가 다시 가리봉역에서 만나던 날 숙맥 영찬이가 만날 때마다 3시간씩이나 나를 기다렸던 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날은 영찬이와 오래 있기로 했다. 해가 지고 영찬이를 어딘가에 재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고민하다가 영찬이 형들이 산다는 신림동으로 가기 위해 우린 전철을 탔다. 전철 속에서도 손 한 번만 스쳐도 흠칫 놀라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던 촌스러운 영찬이가 신림동 그 여관에서 만리장성을 쌓을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잠깐 방에 들어

가서 놀다 가라는 영찬이 말에 못 이긴 척 여관방까지 들어간 나는 영찬이 이 한마디에 그만 내 순백의 순정을 다 바치고 말았다.

“예쁜 옷 그렇게 꾸그리고 앉아만 있으면 다 주글탕 되는데요. 공개 거시기… 그 옷을 어째야 쓰세요이.”

나는 영찬이의 그 ‘어째야 쓰냐’는 말에 같이 옷 걱정을 하다가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다.

그 후 날마다 영찬이를 생각하다가 미싱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도 여러 번이었다. 영찬이가 사는 전주로 가려고 퇴사하려 했지만 회사에 서는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스물다섯 살의 피 끓는 청춘은 그날 밤 가방 하나 달랑 챙겨 기숙사를 나와 전주 가는 막차를 탔다. 나는 그 후로 영찬이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영찬이는 월급봉투에서 10원도 빼지 않고 내 손에 쥐여 주며 해맑게 웃어주곤 했다. 그런 날은 꼭 돼지 앞다릿살을 빨갭게 볶아놓고 우리 둘만의 소박한 만찬을 즐기는 축제의 날이었다.

그 후 나는 영찬이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운 방직 공장에 주임으로 들어가 일했다. 주야 교대근무가 많은 영찬이는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찌개도 끓여놓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 어떤 날은 자전거를 타고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를 자전거 콩무니에 태우고 집으로 가며 큰소리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는 노래를 고막이 터지게 불러 제꼈다. 그런 남자 때문에 나도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임신을 하여 나는 회사를 나왔고 집과 가까운 옷 수선 집에 들어가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를 했다. 그렇게 번 돈에서 딱 천 원씩 영찬이에게 주었는데 어느 날 방바닥이 불룩해서 장판을 들춰보았다. 내가 준 천 원짜리를 한 푼도 쓰지 못한 영찬이는 장판 밑에 그 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게 뭐시여? 왜 이 돈을 안 쓰고 여기 둔 건데?”

“우리 이쁜 영남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어. 그래서 여그 모아둔 것인데. 우리 영남이 배 속에 우리 아가가 똥을 먹고 싶어 허는지 말혀 봐. 이 돈으로 우리 아가한테 맞난 거 사다 먹이지.”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던 사람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단 한번도 거른 적 없었다. 특히 결혼기념일은 더욱 마음을 다해 챙겨주는 사람이어서 언젠가 물었다.

“자기는 왜 생일보다 결혼기념일을 더 신경 쓰는 거야?”

“생일은 장모님이 영남이를 낳은 날이지만 우리 결혼기념일은 영남이가 영찬이에게 시집온 아주 역사적인 날이잖어. 근게 얼마나 내 인생에서 큰 축복인 것이여.”

이렇듯 소소한 행복이 모이면서 우린 부모가 되었고 내가 가진 기술로 차린 옷 수선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찾아들었다. 덕분에 남편은 가게를 좀 더 넓혀서 세탁소를 차리자 했다. 남편은 세탁을 하고 나는 크거나 작거나 어디가 낡은 옷가지들을 수선하며 남편과 25년이란 세월을 한 자리에서 같이 일했다. 누군가 그랬다. 우리 부부는 같이 붙어 일한 세월이 남들의 두 배 120년을 살아온 부부일 거라고. 그게 맞는 말이다. 우린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일했어도 사소한 말다툼조차 하지 않은 잉꼬부부로 살아왔다.

모든 걸 내게 향한 순정과 영찬이의 사랑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가 이제 나와 너무 먼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일을 함께 하고 있던 나는 2023년 10월 23일 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설계사들에게 준 특전으로 동료들과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여행길에 올랐다. 7시간을 꼬박 비행기 속에서 하늘을 내려다보

면서 얼마나 들뜨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동안 회사 일과 수선하는 일에만 코를 박고 살아온 내가 창공을 날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틀간 이국의 풍경을 즐기며 맛있게 먹고 얼마나 웃고 떠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며늘아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흑흑...”

며늘아기는 어머니라고 불러놓고 울음부터 터트리며 말을 쉽게 잊지 못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며늘아기 이름을 부르며 재촉했다.

“왜? 무슨 일이야? 왜? 왜 우는데?”

불길한 예감은 왜 비껴가지 않는 것인지 재촉하던 내 물음에 며늘아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전했다.

“아버님께서 너무 아프셔서 응급실로 실려 오셔서요. 췌장 때문에 시술하셨는데요. 신경내분비췌장암 말기래요. 항암 하면 1년 정도는 사실 거고 안 한다면 한 달 정도 사신다고...”

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란 걸 실감했다. 단체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혼자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가이드를 따라다니던 이들이 20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악몽이었다. 부푼 가슴으로 내렸던 태국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수속을 밟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7시간의 긴 비행이 얼마나 잔인하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 보았는데 5일 만에 만난 남편의 모습은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살이 다 말라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린 부둥켜안고 껴꼭 울었다. 그런 나에게 남편은 “울지 마. 나는 까딱 없으게. 걱정 말고 똑 울음 그쳐라 예쁜 영

남아”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폭 꺼진 남편의 눈 속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후로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입원해서 결국 1차 항암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더 이상 항암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치달고 있었다. 커튼에서 뱀이 나온다는 등 지렁이가 기어 나온다는 등 자꾸 판소리를 했다. 그런 섬망 증상으로 앙상한 손등에 꽂아둔 주사를 뽑아내기 일쑤여서 결국 남편은 다른 손까지 침상에 묶어야 할 만큼 상태가 최악으로 가고 있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때마다 나는 내 속의 모든 힘을 꺼내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며칠째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매달린 내 몸이 속절없이 쏟아지는 졸음을 내치지 못한 탓인지 깜빡 잠든 사이에 남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 편일 것 같던 내 남자의 죽음 앞에서 나는 내 뺨을 때리며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다.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귀에 대고 쉬지 않고 말했다. 그동안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별이 너무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구쳐 나왔다.

“여보, 고마워. 난 당신 만나서 단 한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어. 행복했어... 당신이 내 남자라는 게 감사했어. 오롯이 나만 생각하고 바라본 당신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여보! 아니 영찬 씨! 사랑해... 알지? 내 마음 알지?”

나는 이미 식어가고 있는 남편의 귀에 대고 하염없이 이름을 부르고 울부짚었다. 사람이 죽으면 귀가 제일 늦게 닫힌다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서른다섯 번째 결혼기념일은 병원에서 희미해지던 남편의 의식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당신 빨리 웃어줘야지”라고 표정 없는 남편을 흔들어도 남편의 창백한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서른다섯 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때 남편에게 큰 시숙님은 세례명을 주셨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며 동생에게 ‘베드로’란 세례명을 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그 말을 떠올리며 나는 다시 말했다.

“여보! 영찬 씨, 나 잘하고 있다가 당신한테 가면 천국 문 열어줘.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은 삼십 년이 다 되도록 여섯 군데 성당의 신부님들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겠다고. 맞아. 당신은 천국에 이미 도착했을 거야. 당신 너무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 잘살다 가면 그 문 당신이 열어줘야 해. 약속하지 영찬 씨...”

2023년 12월 남편은 그렇게 떠나고 말았다.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이 2024년 8월에 다시 하나 정해져서 그때 꼭 우리 손잡고 여행 가자고 약속하며 그때 쓸 돈을 모은다고 즐거워했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나와 3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어긴 적 없는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먼 세상 사람으로 돌아갔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해 온 고마운 사람에게 나는 장난처럼 말하곤 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나무꾼이고 나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당신의 선녀인지 모른다고. 그런 나의 착한 나무꾼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남편이 잠든 선산에 벌써 풀들이 자라고 있고 선산 주변으로 산벚

꽃이 봉긋봉긋 꽃잎을 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봄 잔치에 들뜬 계절이지만 나는 한 달째 98세 되신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있다. 살아생전 남편의 효심은 눈물겹도록 극진했었다. 평소에 가끔 등이 아프다고 해서 건강 검진을 예약해 두었지만 예약 날짜가 되기 전에 남편은 병원에 실려 가야 했고 영영 먼 길을 떠나버렸다. 작년 7월에 검사하려다가 어머니의 코암 수술 때문에 검진이 미뤄진 것도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되었다.

“어머니 조금 건강 찾으시면 나는 젊은 게 조금 늦어도 괜찮단 게. 나 까딱없음게 걱정 말어. 당신이 어머니 병시중에 보험 일에 수선 일까지 다 하다가 병날까 무서워서 그러지 난 암시랑토 았단 게.”

이게 남편의 입에 붙은 최고의 위로였고 변명이었다. 그런데 암 진단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그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나도 같이 소리쳤다.

“내가 죽었어안디 우리 영찬이 아까서 어쩐다는 말이냐. 내가 이 늙은 애미가 죽었어안디 내가 살아서 우리 아간 영찬이가 가버렸나 벼.”

“궁게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 신랑 지켜주셨어야죠. 나도 몰라요. 우리 신랑 데려와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영찬 씨 붙쌍해서 어떡하냐고요...”

100세를 눈앞에 둔 어머니를 껴안고 나도 이렇게 속에 없는 말들을 쏟으며 두 발을 비비고 울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버린 후였다.

암 진단 한 달 반 만에 먼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투병하다 딱 1주일 휴가처럼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남편은 힘든 몸을 이끌고 100포기나 되는 배추 모종을 마당 텃밭에 심으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인 게 야들 죽이지 말고



우리 예쁜 영남이가 잘 키워야혀.”

나는 그날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배추 모종을 심으며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도 같이 심었다. 그날 심었던 배추는 꽃샘추위도 거뜰히 견디면서 나날이 푸르러져 간다. 눈도 코도 없는 것이 언제 남편의 말을 다 주워 삼켰는지 한 포기도 죽지 않고 밭두렁을 채우며 꽃대를 올리고 있다. 어떤 것들은 벌써 쑥 뽑아 올린 꽃대에서 노란 배추꽃을 피우고 있다. 나비가 날아와 배추꽃에 앉으면 저 나비가 당신일까? 아닐까? 생각하며 나는 나비가 날아갈세라 동작을 멈추고 봄별 아래 서있다. 그때마다 왜 눈물은 그렇게 나는 것인지.

카톡에 아직도 그대로 남은 나와 남편의 지난 시간이 너무 많다. 그 소중한 사진들을 지우지 못한 나에게 이제 그 사람 훌훌 먼 여행 떠났으니 더 좋은 곳도 보고 좋은 곳 가라고 보내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드르륵드르륵 거리는 미싱 소리 속에서 박음질 되며 새롭게 재탄생되는 옷을 만들면서도 영남이와 영찬이의 지나온 이야기를 되짚는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도 나를 포근하게 안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묻는다.

“약속은 절대 어기는 게 아니라더니 왜?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킨 거야? 우리 같이 여행 간다고 돈 모으면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생 각해 두라더니 왜 혼자 간 거야? 그래서 당신은 영원히 순도 99.9%로 남자야. 꼭 하나가 빠진 남자.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남자라고.”

그렇게 그를 추억하고 나무라는 일로 나의 아픈 속을 달랜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옷 수선을 하며 재봉틀 소리에 잠깐씩 희미해져도 볼륨을 높이며 남편과 함께 들던 여성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기억을 되짚다 보면 다시 애간장이 타버릴 것 같아서 쓰지 말까 했지만 눈 뜨기 무섭게 함께 들던 MBC 라디오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무척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겠지 생각하면서 쓴다.

“여성시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인생 대학 맞는 거 같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정한 일도 다 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잖아. 저 소박하고 따시고 아픈 사연을 듣다 보면 흑여 나쁜 맴을 먹던 사람도 맴을 고쳐먹고 힘을 내서 살아갈 것 아닝개벼. 궁게 그 머시나 언제 우리 똑똑한 영남이도 희은 누님한테 편지 한 장 보내봐. 만약 당첨돼서 꼬신 내 진동하는 우리 야그 나오면 내가 우리 점방 처마에 큰 나발 달고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틀어줄 터 게. 근디 그 사연 쓸 적엔 내 입이 야시시하다는 것은 절대 비밀로 혀야 혀. 하하하~”

봄별이 유난히 따듯한 3월의 늦은 오후 어디선가 이렇게 말하던 그리운 사람의 너털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는 그의 손때 묻은 다리미를 어루만지며 심호흡한다.

“만약 우리 야그가 방송에 나오면 내가 우리 각시 업고 동네 한 바퀴 휘휘 돌아댕길 것이고만. 그때 생각해서 그 불룩한 뺨살은 쪼까 빼뒀으면 쓰것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디 그 머시나 남자의 생명 허리, 내 허리 작신나불른 깡깡현 사람은 우리 영남일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간에 나는 영원한 해바라긴 게. 세상 여자들 다 나래비 세워도 우리 각시가 내 눈에는 최고로 예쁜 게...”

아득하면서도 아직도 내 눈에 내 귀에 내 가슴에 박힌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가 보이는 듯 들리는 듯해서 다시 묻는다.

“영찬 씨,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건너고 있지? 나도 없이 심심해서 어쩔라고 똥이 그리 급해서 세상천지에 나같이 예쁜 여자를 두고 어떻게 발이 떨어져서 훌쩍 가버린 것이냐고?”

아무리 천만번 넘게 묻고 또 물어도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전히 꽃 흐드러진 이 봄날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온 길이  
내가 세상 태어나 다녔던 가장 아름다운 35년 45박의 여행이었다고  
이제야 고백해 본다.

[추신]

편지를 좀 더 일찍 쓸 것을 하고 후회합니다. 우리 남편 영찬 씨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사는 게 바쁘고 무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  
이다가 남편이 가고 이제야 편지 쓸 용기를 꺼내 눈물과 후회로 편지  
를 썼습니다. 정말 이 편지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  
냥 아무 일 없이 신춘편지쇼가 끝나고 다른 수상자님들의 편지를 들  
으며 끝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나마 쓴 것이 남편에게 보내는 연애편  
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 옛날에 얼굴도 모르면서 펜팔로  
인연을 만들어 냈듯이 다시 신춘편지쇼를 통해서 저는 유영찬이란 멋  
진 남자의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펜팔 상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쓰는 동안 너무 아파서 여러 번 소리 내서 울고 엎드리고 했지만 컴  
퓨터는 다행히 젓지 않고 찢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깨끗한  
녀석이네요.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했던 남편과의 인생 여행을 추  
억하며 무너지면 다시 추슬러 손자 손녀 재롱 보고 웃기도 하고 그 아  
이들 데리고 남편의 새집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  
다. 항상 여성시대와 함께하면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 열  
게 해주시어 제 가슴속에 박힌 슬픔과 통증들이 글에 실려 조금 희  
석된 것 같습니다. 남편 떠난 지 이제 넉 달째인데요. 언제쯤이나 제가  
울지 않을지. 다시 또 여성시대에 편지 쓰며 그 울음 그치며 살아가겠  
습니다.



**전** 라남도에서도 고흥반도 남쪽 끝머리에 있는 작은 섬 ‘소록도’를 아시나요? 섬의 모양이 아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하여 소록도라고 부른답니다. 벌써 십수 년이 지난 2007년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생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소록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가 문득 방학을 앞두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이번 방학에 소록도라는 섬에 봉사활동 가려고 해.”

평소 깊이 동경하던 친구가 알려온 소식에 그런 곳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던 저는 갑자기 마음이 일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인기가 많은 마음이 맑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소록도라는 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속된 말로 문둥

병, 나병이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병을 앓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 한때는 버려진 섬이었고 지금은 한센 환자들이 아픈 상처를 안고 함께 살고 있다는 섬이었습니다. 소록도에는 한센 환자들을 돌보는 국립병원이 있는데 일 년 내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일렁이던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먼저 떠난 친구의 남은 자리를 한참이나 붙들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얼마간 헤매던 마음을 다잡아 무작정 짐을 꾸려 소록도로 떠났습니다. 어쩌면 봉사활동이라는 대단한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한참 방황하던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찢’ 여행이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늦게 온 사춘기도 아닌데 늘 어지러운 파도에 휩쓸리듯 불안하기만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 온 타지생활도, 적성에 맞는지도 모를 전공 공부도,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는지도요. 네, 사실은 소록도로 떠나는 그 당시의 결심은 도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전라남도 고흥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녹동항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소록도로 들어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녹동항에서 소록도까지는 배로 10분이 채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토록 육지와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사람들이 발길을 마다한 슬픈 역사를 가졌다는 것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서 해가 중천에서 한참을 넘어가서야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소록도에 발을 딛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소록도 주민이라고 하는 분이 “봉사활동 왔어요? 내가 사무실까지 태워줄게요”



라며 다정하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마치 여러 번 소록도를 찾는 객을 대해 보신 듯한 소록도 주민만의 너그러운 의식이 느껴지는 분이었지요. 수줍음 많은 대학생이었던 저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분의 승용차 뒷자리에 탔습니다. 울창한 숲속 꼬불길을 달려 자원봉사자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내렸습니다.

사무실에 가니 직원분이 봉사활동을 자원해 줘서 너무 고맙다며 반겨주셨습니다. 직원분은 그것이 업무일진대 전혀 사무적이지 않은 따스한 마음을 해주어 저는 바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소록도는 내가 거창하게 봉사하겠다고 찾아간 곳이 아니라 결국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게 될 운명과도 같은 곳이겠구나 하는 것ですよ.

한 달간 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했고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병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를 상징하는 노란색 조끼를 받아 입었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6층. 직원분의 말씀으로는 중증 환자가 많으니 힘들지도 모르겠다며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는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물론 지적 장애를 동반한 환자들을 막상 대하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도 싶었습니다. 폐쇄 병동이라 두 번의 출입 허가를 받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양손과 발이 없는 할머니는 제발 물 좀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눈과 코가 몽뚱그려진 할아버지는 나 좀 밖에 데려다 달라 간청을 하시는 갖은 웅성거림에 머릿속이 정지해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태풍 한가운데 들어선 듯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잡을 겨를도 없이 먼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어떤 여학생이 제게 살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나 봐요? 우리 할머니 손톱 좀 깎아야 하는

데 도와주시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대꾸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 여학생이 시키는 대로 너무 떨어져 손톱을 깎기가 힘든 환자의 손을 붙잡고 같이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어준 할머니는 흥얼흥얼 토속민요인 듯한 노래를 구수하게 불러주셨고 눈이 보이지 않으심에도 저더러 참 이쁜 학생이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첫날은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숙소에 돌아오니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 와 있더군요. 그중 네 명이 대학생이었고 두 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김천, 대구, 전주,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이곳에서 만난 우리는 인연이라면 인연이었습니다. 한 방에서 묵으며 우리는 금방 자매처럼 친해졌습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밤잠을 일찍 주무시는 탓에 새벽 3시가 소록도의 기상 시간이었고 아침 식사 수발을 새벽 5시에 해야 했습니다. 한창 아침잠이 많을 나이였지만 매일 부지런히 봉사자들은 세수도 거른 채 눈만 뜨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벌써부터 환자들의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병원 직원분들을 보조해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침구 정리를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참 깊이 있고 뿌듯했습니다. 어쩐지 다른 세상에 와있다는 기분을 매일 느꼈지요.

봉사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큼직한 돈보기안경을 쓰고 계시던 할머니는 제게 매일 책을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닳아 없어져 책장을 넘기기가 힘들다 하셨거든요. 저는 매

일 같은 시간에 같은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겨워할까 봐 오랫동안 붙잡아 두지도 않고 잠깐 동안 제가 옆에 있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책을 읽어드리는 동안 할머니의 눈동자는 책이 아닌 제 얼굴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쩔 그리 이쁘냐고, 그 이마가 복스러워서 자꾸 눈이 간다고 하셨지요.

또 다른 분은 나이가 많지 않은 아저씨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 김덕림 아저씨. 어린아이처럼 수줍음이 많았던 그 아저씨는 저를 보면 눈을 피하며 몹시 부끄러워하셨어요.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아저씨, 제가 그렇게 이뻐요? 왜 그렇게 도망가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뻐요? 이효리가 이뻐요?” 매일 그렇게 장난을 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덕림 아저씨는 여전히 제 눈을 피하며 “자봉이가 이효리보다 더 이뻐요…”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하는 자봉이는 자원봉사자의 줄임말. 아저씨는 항상 저를 자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병동 휴게실에 앉아 있던 덕림 아저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에게 시를 읊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젯밤 저를 위해 열심히 시를 외웠다고 하며 웅변대회에 나간 초등학생처럼 낭랑하게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간격’이었습니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떤 일인지 제일 첫 구절만 자꾸만 외울 뿐이었습니다. 밤새 시를 외운 듯한데 그다음 구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인지 첫 구절만 읊고 읊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직 안도현 시인의 ‘간격’의 첫 구절만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병동의 침구 정리를 하느라고 병실마다 둘러볼 때 저는 덕림 아저씨의 침대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장에 안도현 시인의 시집이 덩

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림 아저씨는 제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소록도를 떠난 뒤에도 다른 봉사자들에게 종종 저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봉이는 이효리보다 더 이빠요”라고 뜬금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머무는 동안 만난 모든 분이 이 탁한 세상에서 겨우 만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맑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아이같이 천진난만하시던 눈빛과 말투, 걸 모습은 비록 닳고 멩개졌을지라도 마음만은 온전하셨던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소록도 천사라고 부르곤 했지요. 제겐 매일 선물 같은 분들 이셨습니다.

소록도를 생각하면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그 섬의 풍경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땅인데 그곳의 공기는 어찌나 맑은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찌면 그렇게 아래위로 푸르니 저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처럼 맑은 하늘과 청청한 초록 나무들을 눈에 담기 바빴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숙소의 이불과 베개를 꺼내 옥상에 가져다 널면서 깔깔깔 웃어대기에 바빴고 바다에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려 펠에서 조개를 캐기도 했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봉사자들과 나무 그늘 밑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노라면 마치 이 세상이 멈춘 듯 몸과 마음이 기분 좋게 붕붕 떠다녔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시간에는 해변이바람을 동무 삼아 소록도 곳곳을 산책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주민들이 사는 소록도 마을 깊숙한 곳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흔쾌히 열어주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숙소와 병원 근처에만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었고

마을 안쪽에는 열은 빛도 한 점 들지 않았습니다.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안 머물고 있던 어느 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우리들은 어느 날 밤 랜턴 하나만 들고 마을 안의 방파제로 밤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시에서 시달리던 빛 공해와 텅텅한 밤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록도의 밤바람은 마치 미지의 숲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처럼 상쾌했습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마을 길이었지만 달빛이 어찌나 밝은지 굳이 랜턴이 아니라도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길가에 솟아있는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눈앞이 흰했습니다. 방파제에 다다른 우리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 새까만 밤하늘을 구경했습니다. 분명히 까맣고 킁킁한 밤이었는데 왜 그리도 눈이 부시던지요. 쏟아질 듯한 별빛들을 그대로 쏘아 담으며 감탄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입을 뗐습니다.

“여기 이 방파제, 일제시대에 한센인들이 꺾박받으며 직접 지은 거래. 방파제 옆에 창고 보이지? 저기에다 수탈한 곡식을 보관했다. 바다랑 맞닿으면 염분 때문에 곡식이 상하니까 바다 위로 다리를 높이지어 올려서 염분기가 닿지 않도록 창고를 지었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힘든 부역이었던.”

쏟아지던 별빛에 황홀해하던 우리는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병원 들어오기 전에 멋들어진 가로수 봤지? 울창한 나무 숲길이 정말 멋있지 않니? 그 길을 수탄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센병 환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자녀들을 강제로 격리시켜 놓고 한 달에 한 번 그 길에서 만나게 해줬다고 해. 그것도 한센병이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서로 손 한 번 잡지 못하게 하고 나무 아래 그 길가에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혹시나 바람이 불면 병이 옮을까 봐 한센병 환자들은 바람이 부는 맞은편에 서게 하고 자녀들은 바람을 등지고 서게 했다. 부모 자식 간에 강제로 격리된 것도 모자라 한 달에 겨



우 한 번 눈으로만 서로를 만나게 했더니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래서 그 가로수 길을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수탄장이라고 부르는데. 소록도 곳곳에 그렇게 아픈 역사가 많아.”

제가 처음 소록도에 들어섰을 때 ‘수탄장’이라 불리는 그곳의 아름다운 풍광에 홀렸던 기억이 납니다. 높이 솟은 뾰뾰한 나무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마치 소록도에 들어가는 길을 다정하게 안내해 주듯이 멋진 길이었지요. 한낮의 열기를 친절하게 식혀주던 나무 그늘

이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슬픈 기억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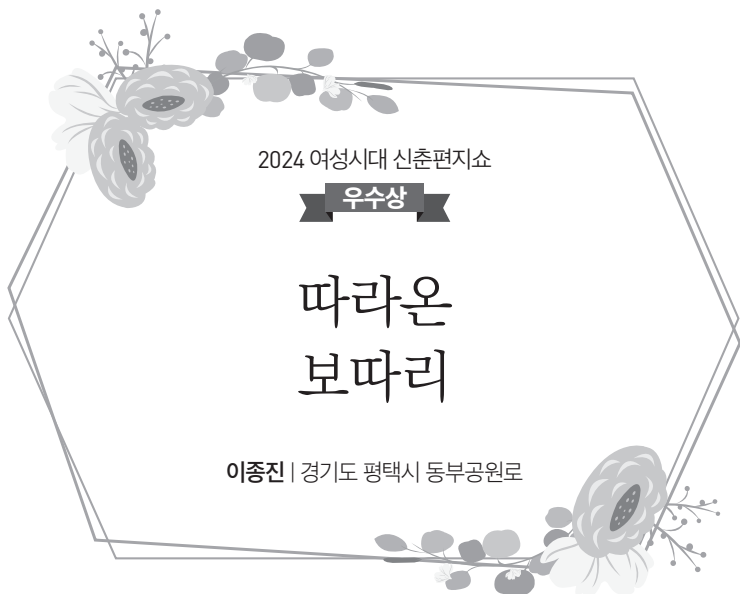
그렇게 소록도에 있던 한 달간의 생활은 봉사활동을 하며 도움을 드린 것보다 오히려 제가 받은 마음의 위로와 휴식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태껏 무관심했던 한센 환자들의 아픈 역사를 알았고 그분들을 위해 작은 일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짙한 햇볕 아래 소록도의 한낫 풍경이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서 위안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병원에 들러 그동안 뵈었던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제가 매일 책을 읽어드렸던 할머니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해 저는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무릎에 엎드려 그만 영영 울고 말았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떠날 때 우는 이들은 다시는 돌아오는 일이 없더라. 웃으면서 가는 이들이 여기 소록도에 또 오고 또 오더라. 울지 마라 아가야~” 제게 부탁하듯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이 참말이었을까요. 그것이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 소록도였습니다. 같은 해 겨울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줄곧 방학에는 엄마 간병에 치중하느라 제게 어디로든 멀리 떠나는 것은 사치가 되었으니까요.

삶은 여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보낸 그 시간은 봉사가 아니라 여행이었습니다. 친구 따라 훌쩍 떠난 여행길이었던 셈이지요. 거기서 보낸 짧은 한 달, 알지 못하면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소록도에 발을 딛지 않았다면 살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과 그 따스한 섬에서 저는 여행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제게 안식을 주었던 소록소록 아기 사슴 섬을요.





**광** 복절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큰오빠에게 거둬 확인했다.  
 “할머니네만 갔다 오면 라면 열 개랑 쥐포 열 마리 진짜 사주는 거지?”

“형이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갔다 오기만 해.”

대답은 작은오빠가 했다.

“기차가 올 때까지 두리번대지 말고 앞만 보고 있어. 여기저기 자꾸 살피면 네가 촌에서 온 줄 알고 잡아갈지도 모르니까. 알았지?”

기차역까지 데려다주면서 작은오빠가 계속 같은 소리를 했다. 길을 한참 걸었고 버스도 갈아탔다. 혼자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작은오빠에게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긴장은 했지만 이상하게 떨지는 하지 않았다.

“너 혼자 다녀올 차비밖에 없어서 그런 거잖아. 누가 말 시켜도 말

하지 말고 표에 보이는 대로 5호차에 타. 내 동생 잘할 수 있어.”

평소 놀리기 바빴던 작은오빠가 너무나 친절해서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눈에 힘을 잔뜩 주고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들을 바라봤다. 안내 방송에 따라 나는 거리낌 없이 기차에 올랐다. 어떤 여정이 기다리는 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처음 기차를 탔을 때가 떠올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겨울이었다. 앞 의자가 돌려져 있었고 나는 창가 쪽 엄마 무릎에 앉전히 앉아 있었다. 어느 역에 기차가 잠시 정차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동안 얼굴이 평소보다 더 노래진 엄마는 창문을 열었다. 나는 멀미가 나서 열린 창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반대쪽에서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며 ‘뽕’ 소리를 냈다. 내 몸이 밖으로 달려 나가려는 찰나 엄마가 나를 빠르게 끌어당겼다.

“아휴, 큰일날 뻔했네. 밖으로 고개를 내밀면 어찌니?”

맞은편에 앉은 아줌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나를 꼭 안아 주었다. 엄마와 내 심장은 기차 바퀴처럼 쿵쾅거렸다.

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가는 동안 반복해 들었던 말이 기억난다.

“할머니는 엄마 돌아가신 거 모르시니까 티 내면 안 돼. 알았지? 할머니가 물으시면 엄마 잘 있다고 해. 할 수 있지?”

“네”라고 대답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외갓집 식구들은 외할머니 생신 때와 광복절에 꼬박꼬박 두 번 모였다. 말이었던 엄마는 나랑 가거나 작은오빠랑 셋이 가곤 했다. 우리 집만 빼고 한 집에서 네 명씩 왔다. 우애가 좋아 1년에 한두 번을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고 수다가 끊이지 않았다. 사춘들끼리

사이가 좋아 아주 잘 놀았다.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나는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들 보듯 낯을 가렸다. 엄마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사촌들과 같이 놀곤 했었다.

“그래 멀미는 안 했고? 엄마는 같이 안 왔나?”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하는 나를 보자마자 당신의 큰딸 안부를 물으셨다. 사투리 억양이 정겨웠다. 나는 엄마가 생각나 코끝이 찡해왔다. 외숙모가 옆에서 재빠르게 말을 받았다.

“어무이, 야 배고파요. 언능 밥 좀 멕여요.”

“그래그래 밥부터 멕여야지.”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하고 잡던 손을 할머니가 잡으니 코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내려 했다.

“할머니네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덥네요.”

내 말을 들으신 할머니가 선풍기를 내 앞으로 끌어다 놓았다.

“천장이 낮아 집이 덥다.”

외숙모가 준비해 놓은 밥상을 들여오며 말했다. 할머니가 다시 물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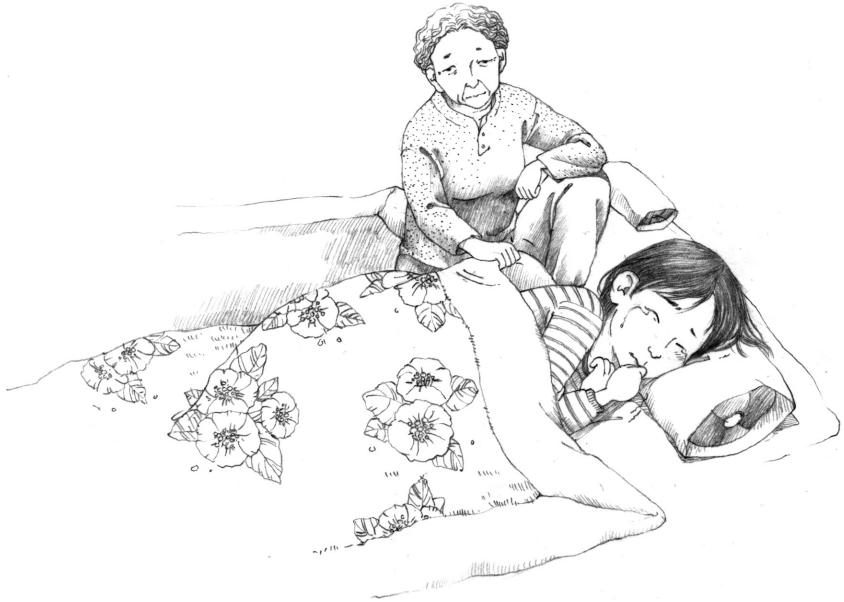
“우예 혼자 왔노?”

“어무이, 야 밥 먹그로 내두이소. 이따 물으이소. 형님 잘 있제? 아버지도 안녕하시고, 너그 오빠들도 모두 잘 있고.”

나는 수저를 만지작거리다 외숙모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니는 나더러는 내두라 하면서 와 문노?”

할머니가 소리를 높이며 외숙모를 쳐다봤다. 외숙모는 할머니랑 나랑 둘만 있게 하지 않았다. 저녁에 막내 외삼촌이 오셨다. 근처에 사는 큰 외삼촌네 식구들이랑 막내 이모네 식구들도 왔다. 과자를 많이 사 오셨다. 이상하게 과자가 맛이 없었다. 할머니는 왓자지껄함이 좋으신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엄마가 없어 너무 어색했다. 오빠들 말에 넘  
어간 걸 후회했다.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할머니 방에 할머니  
와 둘만 남았다. 할머니가 누워있는 나에게 소곤거렸다.

“야야, 자나? 너그 엄마는 왜 안왔노? 벌써 잠들었나베.”

나는 깊이 잠든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감은 눈 사  
이로 눈물이 흘러 돌아누웠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많이 부어 잘 안 떠졌다.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집 앞 텃밭으로 가자고 하셨다. 고랑 사이에 풀을 뽑으며 할머니가 “너그 엄마는 왜 안 왔노? 느그 아버지가 바쁘다고 못 가게 했나? 이 서방이 못 가게 안 할킨데. 어디 아프나? 와 대답이 없노? 많이 아프나?”

나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졌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와 우노? 와 말을 안 하고 울기만 하노? 너그 엄마 죽을병이라도 걸렸나? 그래 몬 왔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호미질을 멈춘 할머니가 내 얼굴을 감싸시며 “무슨 일이고. 할미 답답해 죽는다. 왜 느그 엄마가 죽기라도 했나?” 난 대성통곡을 했고 할머니는 낮이 나간 듯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 둘은 피약별 아래 한참을 앉아 있었다.

쇠비름을 뜯어 추리신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부엌으로 갔다. 끓는 물에 쇠비름을 삶아 나물을 만드시는 내내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다.

“니 엄마 없어도 잘 먹어야 한데이. 순아는 이 어린 걸 두고 우에 눈을 감았노.”

비름나물을 넣어 비빔 밥을 건네주는 할머니의 손이 떨리셨다. 내 손도 떨렸다. 할머니와 나는 딸과 엄마를 잃은 슬픔을 비빔밥에 눈물을 섞어 먹으며 달랬다.

할머니는 내가 머무는 동안 계속 우셨다.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풀어 놓으면 안 되는 슬픈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 같아 마음이 옥죄어 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밭에 무성한 쇠비름을 보거나 기적 소리를 들으면 어김없이 할머니와 엄마와 어린 내가 달려 나온다. 내게 여행이란 그렇게 슬픔을 싣고 가는 기차가 되어버렸다.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가작

# 끝내고 싶지 않은 여행

이순희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션시티로

나는 중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남편,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빛은 없지만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하는 그런 생각, 상상도 해봤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모를 한국에 오게 하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한국에 가는 게 힘들었다. 브로커에게 빚을 내서라도 많은 돈을 쥐가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주고 사기를 당해서 못 가고 빚만 가득 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 조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필요한 서류를 보냈으니 여권을 만들고 비자만 맞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심장이 쿵쿵, 말로만 듣고 상상만 하던 한국에 갈 수 있다니 너무 좋아서 애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비행기는 얼마나 클까, 사람은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겠지 하는 많은 궁금증으로 그날 저녁은 잠을 설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근심, 남편과 두 아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다. 기쁘고 좋은데 발이 안 떨어졌다. 하지만 안 가고 그대로 여기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하여 큰 결심을 하고 안 떨어지는 발을 움직여 2006년 3월 21일 트렁크에 옷 몇 벌만 챙기고 많은 궁금증과 꿈을 안고 드디어 한국 부산행 비행기를 탔다.

처음 와보는 공항,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애들처럼 신기해하고 신나했다. 그렇게 금방 김해 공항에 도착했다. 조카가 마중을 나왔다. 공항 출구에 나와 보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조카 집으로 가는 길옆에 동백꽃이 피어 있는 것이 신기했다. 영하 30도 되는 우리 고향에서는 3월에 꽃이 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길거리 어디를 봐도 너무도 깨끗하다.

그렇게 조카 집에 있으면서 출입국 신고도 하고 외국인 교육도 받고 하면서 신분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았다. 50일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신분증을 받았다. 그 기분 어디에다 말할 수 없었다. 이제는 진짜 일할 수 있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다.

며칠 후 일자리를 찾으러 친구가 있는 서울로 갔다. 서울역에 마중 나온 친구와 함께 친구 집으로 가는데 지하철도 타보고 밖에 높은 건

물들이 보이는데 절로 감탄이 나왔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이지만 이렇게 발전해서 나와 같은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했다.

이튿날 친구가 적어준 직업소개소 전화번호를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행길, 어제 친구와 함께 타봤지만 혼자서는 처음 타보는 지하철을 타고 소개소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내고 주인집 전화번호를 받고 면접하러 갔다. 길을 몰라 물어도 모두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운 좋게 면접이 됐다. 면접 본 집은 30일 되는 애기 한 명에 사장님, 사모님 식구 3명이다. 월요일~토요일 오후 3시까지 입주하는 일이다. 애기를 24시간 돌보는 외에 가사를 책임을 져야 한다.

이튿날 설렘과 근심을 안고 출근했다. 아침에 밥해 먹고 천 기저귀를 초벌 빨고 삶고 또 손빨래하고 애기 돌보면서 째짤이 장보고 청소하고 저녁을 챙긴다. 사모님은 간식거리로 과일도 빵도 사 온다. 눈치보지 말고 먹으란다. 참 좋으신 분들이다.

애기는 저녁에 데리고 잔다. 애기를 재우고 누우면 집에 남편과 아들들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그때는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안 되어 있을 때고 일반 통화를 하지만 그것도 국제전화여서 자주 하지는 못했다. 물론 일도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들들을 보고 싶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었다.

그렇게 한 달 첫 월급을 받았다. 실감이 나고 너무 좋았다. 그런데 쉬는 날 친구 집에 가는 것도 눈치 보였다. 그래서 작고 싼 방을 하나 얻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작은 냉장고, 배불뚝이 텔레비전, 식칼, 그릇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가져다주셨다. 그 고마움 말할 수 없었다. 참 나이는 어리지만 정이 많은 분인 걸 또 한 번 느꼈다. 한국분들은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란 걸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면 열심히 애기를 잘



돌봐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내 손주처럼 잘 돌봐줬다.

온 하루 애기 보고 집안일하고 저녁 먹고 애기 목욕시켜서 재우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오직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애기 하고 정이 들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오래 있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애기가 12개월 시작되던 어느 날 애기 돌 사진 찍으러 간단다. 그런데 날 보고 같이 가자고 한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가셔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애기가 이모님을 더 따르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할 수 없이 같이 가기로 했다. 속으로는 애기도 예쁘지만 조금만이라도 혼자서 쉬고 싶었다.

그렇게 사진관에 도착해서 사진 찍을 준비를 했다. 거기 사진관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다. 정해진 시간 내에서 찍어야 한다. 사진사가 찍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애기가 내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흐르고 힘들게 모두 노력해서 찍기는 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진이 몇 장 없었다. 사모님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사장님은 다시 일 보러 나가시고 사모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모님이 일 그만두셔야 되겠어요 하는 거다. 왜요 물으니까 이유는 애기가 이모님을 너무 따르고 좋아하니까 몇 년 지나면 엄마를 안 좋아할까 봐 마음이 불안해서 사모님이 일 그만두고라도 애기를 키우시겠다고. 그거는 사모님 마음이니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했다. 그랬더니 지금 가시란다. 그때 겨울 해져녁 6시였다.

바로 짐을 싸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다. 오는 동안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다. 내 뭐 실수라도 한 거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지 하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8년 만에 힘들게 낳은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나를 자르는 방식이 조금은 섭섭했던 거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옆에 애기가 있는 거 같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틀 후에 장난감 선물을 사 가지고 애기를 보러 갔다. 사모님이 기분 좋게 반겨주셨다. 사장님한테 이모님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한 소리 들었다고 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왔다.

그렇게 10일 지난 어느 날 사모님에게 전화 왔다.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다시 오셔서 봐달란다. 애기가 너무 울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봐주고 아쉬운 대로 그 집에서 나왔다. 그 이후 보고 싶어서 두 번 보러 갔고 내 사정상 김해로 내려오게 됐다.

지금은 부산 또 다른 집에서 몇 년 전 4세와 20일이었던 아기들을 만 6년째 보고 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남의 손주라도 애교부리고 투정 부리고 친할머니, 외할머니보다 더 따르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한국 나라 덕분에 아들들도 대학도 보내고 결혼까지 모두 다 시켰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깨끗하고 공기 좋고 정 많고 인심 좋은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집소

가작

# 여행지에서의 여행

장경옥 | 경북 상주시

저는 4월이 되면 아들을 만나러 여행을 떠납니다. 아들을 만나  
는 것이 무엇이 대수려니 싶겠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귀  
한 설렘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매 맞는 여성이 들어가는 쉼터  
에서 갓 퇴소하여 취직하였고, 그런 만남이다 보니 아들과의 만남도  
무엇보다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기나긴 여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히 여행이라고 표현해  
도 될지 모르나 어쨌든 집을 떠나 있으니 여행이라면 여행이지요.

남편은 의처증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자기가 하던 일이 마  
음대로 되지 않으면 저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러고는 끝내 제가 바람  
을 피웠다는 둥, 다방에 다녔다는 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돌이 만났다는 둥 실컷 막말을 퍼붓다가 제풀에 지치면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가슴을 콩닥이며 얼른 화가 풀어지고 불뚱이 제게 튀지 않기를 기다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다반사였죠. 잠을 싹껏 못 자니 자꾸 마르고 제 키 167cm에 몸무게가 43.5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을 나온다거나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참고 살면 되고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오이 하우스를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충망을 보고선 찢어졌다며 그곳으로 남자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풀이 누웠다고 했어요. 같이 가보니 방충망은 낡아서 닳았고 풀은 남편의 표현처럼 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풀이 누웠고 방충망이 찢어졌으므로 제가 바람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오이 따는 쪽가위로 저를 찍으려고 하고 험한 눈빛으로 소리를 지르며 인정을 종용했습니다.

‘아, 내가 오이밭 모퉁이에서 이렇게 죽는구나’하는 무서움이 밀려오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 아니야, 아니야”를 반복하며 한 발 한 발 뒷걸음쳐서 오이밭 현관문까지 왔습니다.

평소에도 “니 하나 못 죽일 줄 알고”란 말을 자주 썼거든요. 그때는 저는 “나는 소가 살린 목숨(소 다리에 걸려서 어릴 적 살았다고 함)”이라고 되받아쳤었지요.

겨우 현관문까지 왔는데 기어이 남편은 “풀이 밟혀서 누웠는데 증거가 명백한데 거짓말을 친다”며 제 머리통을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때리고 씹씹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 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선 거지요. 폭행도 습관이라는데 한 번 때리면 자꾸 때린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까지 맞아가며 사실도 아닌 것

을 사실로 인정까지 해가며 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이를 그것도 늙어서 못 팔아먹는 것만 골라서 악을 악을 쓰며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던 오이 작업장이 순식간에 깨어진 오이로 뒤집혔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돈 되는 오이는 던지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있는 도전이었고 내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남편도 주춤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물었으나 그날 밤 밤새 한숨도 자지를 못했고 잠을 못 자서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악을 써서인지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은 떴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 그런 나를 오이를 따러 나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며 오이를 따라고 했고 제가 “당신이라면 지금 오이를 딸 수가 있겠느냐?” 했고 남편은 내 손목을 억지로 끌어당기며 일으켜서 오이를 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완력으로 일으켜 세운들 누가 오이밭으로 갑니까. 어젯밤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 이제는 모멸감까지 들었습니다. 제 팔을 잡아당겨 질질 끌고는 “오이를 따지 않으려면 필요가 없다”면서 밖으로 내쫓고는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전화기도 빼앗기고 주머니에는 단돈 오천 원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반가량까지 실랑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저는 경찰서에 갔고 쉼터로 갔습니다.

저의 쉼터로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쉼터에서 무엇보다 슬펐던 것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고 살기 위해 손가락을 쥘 자신이 바보같이 여겨졌고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손가락만 쥐면 눈물이 펄펄 쏟아지는데 제가 평생에 쏟을 눈물을 이

때 다 쏟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고아나 다름없는 남편을 만나 시동생 다 보살피고 둘째이면서 제가 다 모시고 사람 도리를 다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남편에게 업혀도 시원찮은 판에 쫓겨나다니요.

쉼터에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상담 선생님이 와서 심리 상담을 했는데 저는 그 ‘억울하다’는 단어가 늘 등장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억울합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남편은 저를 찾느라고 실종신고를 냈고 언니 집에서 딱 한 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관계 다 정리하면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잊지도 않는 남자관계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아들은 쉼터에 온 뒤 몰래 한 번 만났습니다. 남편을 따돌리고 출처를 숨긴 뒤 만나야 하니 007 작전입니다. 아들에게는 그런 아버지를 둔 너의 죄요 그런 지아비를 만난 나의 죄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열심히 살자고 했습니다.

이번 4월에는 아들을 만나서 일박이일 동안 바닷가에서 같이 지낼 계획입니다. 아들도 착하고(저를 닮아서) 저도 취직을 했습니다.

모처럼 편지를 쓰니 문장도 영키고 두서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쓰니 속도 시원하고 눈물도 납니다.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집소

가작

# 60의 길목에서 소환해 낸 가슴 아픈 수학여행

서영만 | 서울 송파구

**내**가 11살 때였으니까 1975년 10월 어느 날 해질녘 썸의 일이었다.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되는 그날은 추적추적 흠뻑리는 가을비 때문에 더 쌀쌀하게 느껴졌다. 1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5학년들은 2박 3일간의 수학여행에서 막 돌아와 친구들과 재잘대며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를 각별하게 아껴주시던 아랫집 경주 아짐, 재목이네 엄마, 병환이 형네 엄마를 비롯하여 동네의 낯익은 아짐들이 유독 많이 나와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영만이 어째야 쓰까잉!”

아짐들은 나를 보자마자 일제히 울부짖었다.

“아이고! 니 아버지가 죽어부렸어야!”

아니, 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린가? 내가 수학여행을 출발한 그저께

만 해도 멀쩡하셨던 아버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아버지는 3살 때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여의시고 고향 동네에서 형과 단둘이 남의집살이를 전전하다가 올 엄마와 결혼하면서 처가가 있는 남도의 끝자락 우리 동네에 터전을 잡으셨다.

잠시도 쉬지 않고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눈에 보이게 꺾어진 것은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던 엄마의 병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에 걸리신 것이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픈 엄마를 업고 온 세상을 다 다니셨다. 백약이 무효였다. 엄마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야위고 말라가시더니 결국 그해 8월에 세상을 등지고야 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두 달 전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죽음이 당신 때문이라 여겨서인지 식음을 전폐하고 대청마루에 앉아 넋을 놓은 채 먼 산만 바라보시는 것이 일과였다. 그러다 가끔 동네 앞 길가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거나하게 드시고는 집에 돌아와 밥 한술도 안 뜨고 쓰러져 주무시곤 하셨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학교 일정에 따라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실컷 놀다 돌아와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는 그래도 온 식구들이 마음으로나마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할 수 있었다. 엄마가 안방 아랫목에 누워서 점점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어린 나조차도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픈 일이었다.

늦둥이 막내라서 그런지 엄마 품에 더 안기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플 것 같아 차마 어리광을 부릴 수 없었다. 아픈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온갖 재물을 부려도 엄마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다가 엄마가 다리가 저리다고 밟아달라고 손짓하시면 내가 밟으면 엄마의



병이 나올 줄로 철석같이 믿고 온 힘을 다해서 짓이기듯 밟아드렸다. 그래도 엄마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아니 말할 기력이 없어 보이셨다. 어떻게든 엄마 품을 더 누리고 싶었는데 어린 나로서는 도무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아부지는 그런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셨다. 병원에서 포기한 엄마를 아부지는 절대로 그럴 순 없었을 것이다.

3살 때 잃어버렸던 '가정'을 찾아준 소중한 아내! 4남 4녀를 낳아주고 당신을 하늘처럼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준 그 귀한 짝을 아부지는 죽어도 그냥 보낼 순 없으셨으리라.

효험이 있다고 하는 온갖 약초가 달려졌다. 굼벵이가 즉효라고 해서 우리 형제들은 매일 동네 집집마다 초가지붕을 뒤져야 했다. 인근에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 심지어는 목사님, 법사님까지 전부 불러들였다. 경기도 포천에 영험한 권사님이 기도 한 번으로 암을 완치시켰다는 소문이 있어 아픈 엄마를 업고 지고 그 먼 곳까지 한달음에 다녀오셨다.

심지어 아부지는 당신 사주 때문에 엄마가 아픈 것이라면서 이름까지 개명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아버지 이름 때문에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동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개명 전 이름 앞에 '개'자를 붙여가며 죽사발을 만들어야만 했다. 울 엄마를 아프게 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울 아버지 '옛날 이름'을 욕비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주렁주렁 딸린 어린 것들은 일심동체가 돼서 엄마를 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건만 엄마는 속절없이 말라가더니 마치 하늬바람에 하릴없이 훑날리는 깃털처럼 허망한 마지막을 남겨 놓은 채 먼 길을 떠나시고야 말았다.

엄마가 가셨을 때는 그나마 어린 나조차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

던 것 같다. 그래서 엄마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은 오히려 답답함 쪽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믿을 구석인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꿈에 부풀어서 다녀왔던 그 즐거웠던 수학여행 말미에 웬 흥두께 같은 소리인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돌맹이에 머리가 부딪치셨다. 뇌진탕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황망하게 그토록 그리던 엄마 곁으로 떠나셨다. 11살이던 나는 그렇게 ‘고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날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내가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닌 일종의 ‘배신감’이었던 것 같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혼자만 몰래 떠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린 나의 전부였던 아버지를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 ‘죽음’이란 존재에 대한 배신감! 목청껏 소리 높여 우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11살짜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죽음’이 두 달 간격으로 연속해서 나를 처참하게 짓밟개버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당시 나는 꿈에도 그런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다. 어쩌면 ‘그날’ 그 수학여행에서 막 돌아온 날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로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느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배신감은 결국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떡 같이 응어리져 내 삶의 단계 단계를 지날 때마다 그리움의 눈물로 변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종내에는 소중한 사람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늘 달고 살아야만 하는 고약한 ‘운명의 뒷’에 걸리고야 말았다.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후 얼마 동안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억척스럽게 벌어놓은 땅 떼기를 팔아가며 같은 동네에 사시던 외조부모님과 외삼촌, 이모 덕분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상황은 변해 갔다. 그리고 그 상황들은 11살 철부지였던 나에게 '이 세상에서 고아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온몸에 한 땀 한 땀 새기도록 끊임없이 강요했다.

그런 상황들과 부닥칠 때마다 혼자서만 엄마한테 가신 아버지께 대한 배신감이 그리움으로 절절하게 응어리져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눌러붙어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모든 걸 나 혼자서 해야 해!'라는 무기력한 다짐을 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다니던 학교에서 나는 갑자기 불우이웃이 되었다. 선생님들의 말투가 더 다정해졌고 농번기 때마다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봉사활동을 나왔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집안 대소사를 책임진 소녀 가장 누이를 도와서 온갖 집안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때는 40원 하던 차비가 아까워 십리 길을 걸어서 다니거나 동네 형들이 쓰다 남은 중고 자전거를 구해서 타고 다녀야만 했다. 도중에 트럭이라도 잡아타는 날은 억세계 운이 좋은 날이었다.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면사무소에 들러 집안 사정을 주절주절 읊소하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

고등학교는 동네서 한 시간 반이나 떨어진 광주로 다녔다. 싼 월세로 반지하방을 얻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방세를 올릴 요량으로 난방도 되지 않는 허름한 방으로 옮기라고 하는 바람에 추위 속에서 한겨울을 지내야 했다.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다. 금요일만 되면 집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감당했다. 어떨 때는 광주

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 먼 소재지에서 어렵게 사는 시집간 누이한테 빌려야 했다.

연감생심 학교에서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그냥 못 들은 척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의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었거니와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 누이한테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수학여행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제 앞길을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도맡은 누이의 어깨를 더는 아프게 하지 말아야 했다.

2학년 말이 되자 학교에서 진학 조사가 이루어졌다. 인문계 고교라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육군 헌병 부서관으로 있던 20대 중반의 큰형이 이제 막 어렵게 전역하고 집안 살림과 어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맡게 되었는데 그런 형에게 대학에 가겠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이것조차도 나 혼자 해결해야 했다. 어릴 적 마음에 품었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내고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내 마지막 보루로 정했다. 그리고 모진 고생 끝에 합격할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육사에 입학하면서부터 내 삶은 한 번 더 바뀌었다. 세기 밥과 잠자리 걱정을 덜었다. 거기다가 입을 옷가지는 물론 공부할 책과 학용품에 약간의 용돈까지 손에 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삶의 고단함이 모두 해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입학식 때나 어버이날, 휴가 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친구들을 불러치면 가슴속에서 남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아 내야만 했다.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막연한 다짐과 각오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리움의 눈물까지는 생활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었다.

장교로 임관했고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예쁜 아내를 꼭 빼닮은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때도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엄마,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하는 생각에서 그 눈물이 여전히 내 마음 한가운대를 흘러내리고 있었다.

결혼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그 눈물은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 두려움은 어릴 적 두 번의 죽음으로 난타당하면서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였다. ‘누구나 갑자기 죽을 수 있다’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그리움의 눈물은 나를 낳아주셨던 엄마,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면 가장이 되고 나서부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낳은 자식들을 향했다. 내 안에서 핏줄을 타고 꿈틀대며 흐르는 본능적 변화였다.

그 두려움은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운명처럼 내 삶에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신혼의 단꿈을 꿀 때도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태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면서도 ‘나도 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내가 너무 일찍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를 무의식중에서도 지독하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직업군인이었던 내가 주로 근무했던 부대가 특전사이다 보니 그 두려움과의 싸움은 더 힘겨워졌다. 공수 낙하 훈련을 위해 비행기에서 텅 빈 허공으로 몸을 내던져야 하거나 해상침투를 위해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내 눈앞에서 어

른거리거나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곤 했다.

그럴수록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도 거세져만 갔다.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이면 마다치 않고 뛰어들었던 것 같다. 생명을 담보로 한 어려운 훈련이나 작전이 있으면 가장 먼저 자원을 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해외의 전투 현장으로 두 번이나 파병 근무를 지원해서 다녀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카불에 있는 대사관에 다녀오는 길에 바로 앞 도로에서 폭탄이 터지는 일을 겪기도 했었다.

이런 두려움은 점차 아이들이 커가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내가 부모님을 잃었던 11살 그 나이’를 지나자 조금씩 무뎠고 있었다. 내 저항의 몸부림도 수그러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운명의 덫’에 걸리지 않은 것을 껴이나 다행스러워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비로소 내 나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나이’ 즈음이 된 것이다. 갑자기 48년도 훨씬 더 지난 그 악몽 같은 기억을 소환해 낸 것은 그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울 아버지의 나이가 육십을 코앞에 둔 지금의 내 나이와 비슷했던 것을 어렵풋하게 생각해 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육십이 되기 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평생을 흘러내려야 했던 그리움의 눈물과 소중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눈 깜빡할 사이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는 좀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육십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나이’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았다는 안도감과 그랬으니 내가 잘산 것이라는 나름의 대견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철모르는 시절 갑자기 닥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뜻 모를 배신감이 점차 철이 들어가면서 그리움으로 변하고 가장이 되면서부터는 ‘언제라도 소중한 이들을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되기까지 그날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의 가슴 아픈 기억은 커다란 바위처럼 평생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내 삶 전체를 짓눌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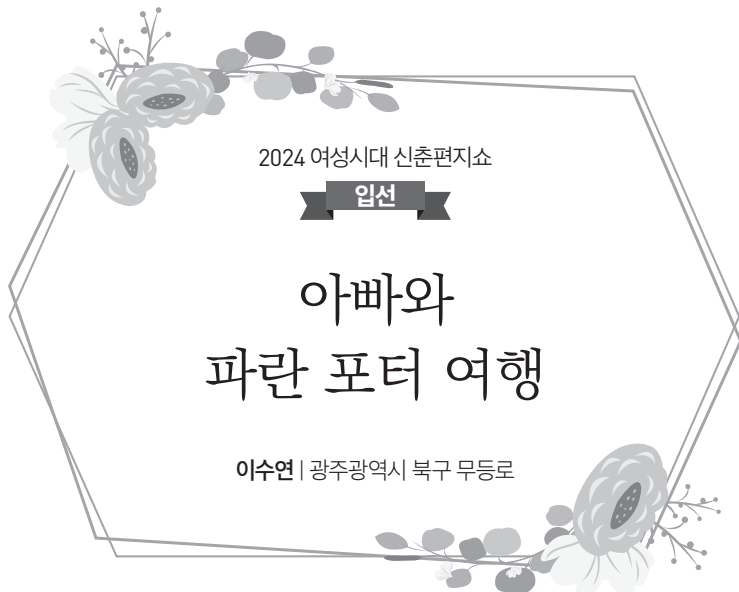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 즈음이 돼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 아픈 기억이 내 삶 한가운데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인생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나를 지탱해 주던 눈에 ‘보이는 하늘’은 사라졌지만 내 안에 남아 있던 배신감과 그리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보이지 않는 하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육십의 길목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올 엄마와 아버지가 저 하늘 위에서 늦둥이 막내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이겨내라’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우리 형제들은 매년 11월 첫 주를 엄마, 아버지 합동 제삿날로 정해서 추모해 오고 있다. 올해 제사 때는 올 아버지한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생겼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천만 배우 황정민이 연기했던 노년의 덕수가 ‘즈그 아버지 제삿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했던 대사’ 말이다.

“아버지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예!”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아빠와 파란 포터 여행

이수연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저희 아빠는 25살 젊은 나이에 오빠를 낳고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제가 배 속에 있을 때 고향인 광주로 오셨습니다. 광주에서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일은 이삿짐 일이었어요. 아빠와 저 그리고 아빠의 파란 포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첫 차는 아빠의 직장동료이자 우리 집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파란색 포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 다섯 식구는 파란 포터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언니, 저 5명. 포터는 3인용. 어떻게 차를 댔을까요? 좌석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은 당연히 아빠, 조수석에는 무뚝뚝한 오빠, 그 가운데 보조석은 예민한 언니, 좌석 뒤 좁은 짐칸이 저와 엄마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짐칸이 항상 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갈 때 저를 데려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일을 따라가는 저는 짐칸을 벗어



나 조수석에 앉아 갈 수 있었죠. 일하러 가는 길에 아빠와 둘이 시시콜콜 이야기도 하고 아빠가 만든 노래라며 동요도 가르쳐 주고 아빠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러 가는 길이지만 저에겐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가르쳐 준 노래는 ‘아빠의 얼굴’이라는 동요인데요. 본인이 만들었다며 저에게 알려줬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그 동요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보고 ‘속았다’라는 배신감을 느꼈죠. 학교에서 배웠는데 아빠가 만든 노래가 아니지 않냐며 성질부리는 저에게 “아니야. 아빠가 만든 거야~” 하며 웃는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빠와 함께 일하러 가는 길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일을 가는데 엄마랑만 가겠다고 저에게 선포하시더군요. 저는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고 아빠는 저에게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딱 한 번! 한 번만 깨울 거야. 그때 일어나면 같이 가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놀러 간다는 기대감으로 잠을 설치지는 않았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녘에 제 귓속으로 엄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저는 그 속삭임 하나에 벌떡 일어나 “가자!” 하며 웃을 입었습니다. 저를 놓고 가려고 했던 부모님의 노력에도 저는 벌떡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고 하던 딸이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일어나지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모님이셨어요. 하지만 상대는 유치원 가기 싫어했던 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엄마와 함께 출발하였고 일이 끝난 후 근처 관광지도 둘러보고 찻집방에서 계획하지 않은 1박도 하였습니다.

저에게 여행이란 아빠와 함께한 드라이브였고 관광버스였습니다.

아빠의 포터는 저에게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짐칸에 올라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제 '무대'였으며 정글짐같이 트럭 위를 올라가는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아빠와의 드라이브는 끝이 났습니다. 제 추억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포터이지만 사춘기가 오면서 '쪽팔린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준다고 해도 싫어했고 그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나는 낡은 트럭을 타야 하는지,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빠도 속상하셨을 거예요. 외할머니 집에서 집에 가는 길이면 저는 좁은 뒷자리에 타기 싫다며 성질을 부렸거든요. 그때마다 엄마는 슬퍼하셨고 아빠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걸 이제는 알아요.

시간이 더 지나 아빠는 포터를 폐차하였고 지금은 사다리차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중고 승용차도 한 대 구입하셨고 저희는 더 이상 좁은 짐칸에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타지역으로 일을 나가는 일이 줄었고 여행을 가는 날은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의 여행은 단순한 드라이브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본 예절교육은 물론이고 조기 운전 교육으로 저는 2종 보통면허이긴 하지만 수능이 끝나자마자 한 번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지금은 매일 왕복 50km의 거리를 무사사고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트럭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몇 년 전 별교에 집을 마련하신 후로 승용차로는 짐을 옮기기 힘들다며 트럭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계십니다.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며 글을 마칠 것입니다.

“아빠, 막둥이가 사줄 게 트럭! 중고도 괜찮지?”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눈먼 우리 엄마, 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던 날

서경숙 | 서울 송파구

“당신이 만약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당신은 언제 어디로 누구와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 그 어떤 절경도 감상할 수 없는 당신에게 과연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해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글제인 ‘여행’을 처음 봤을 때 내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곳은 노란빛 봄이 만개한 3월의 선정릉이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 송파동에 살고 있는 내게 선정릉이 어떻게 ‘여행지’가 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내 어머니 박갑남 여사와의 잊지 못할 추억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는 앞을 전혀 못 보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생전 언감생심 여행은 꿈도 못 꾸셨어요. 유일한 외출이라고는 주일마다 남동생의 부축을 받아 교회 예배를 가는 것 그리고 가끔 편찮으실 때 병

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빛 한줄기 없는 성냥갑 같은 방 안에서 오직 온종일 틀어 놓은 MBC 라디오에 의지해 처절하게 외롭고도 지루한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 나의 엄마는 자신에게 짐 지워진 가혹한 십자가의 무게에 아무 불만도 없으셨어요.

정작 당신 자신은 어둠 속에 계셨지만 그 누구보다 밝은 분이셨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봄 햇살, 철마다 다른 색으로 단장하는 나무와 꽃들, 고운 비단의 잘 지어진 한복 치마, 본인이 그리도 애지중지하시던 손자 손녀들의 얼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그 아무 것도 보지 못하셨지만 매일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해의 3월 엄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운 엄마에게 폐암이라니, 먼지 쌓인 방안에만 평생을 갇혀 계셔서 그런 몹쓸 병이 생겼구나 불효녀는 속절없이 울었어요. 엄마는 내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지요.

“경숙아, 나 이제 어디 좀 가고 싶다. 더는 방 안에 누워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부랴부랴 제주도나 일본이니 가까운 여행지를 뒤져 보았지만 항암 치료 중인 시각장애인인 딸만 한 곳으로는 세상 그 어디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작 어디든 열심히 모시고 다녔어야 했는데.”

고개를 떨군 내게 엄마는 “괜찮아. 우리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선정릉이나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선정릉으로 봄 소풍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엄마 손을 붙잡고 선정릉으로 처음 향하던 3월의 그날

이 눈에 선히요. 논현동의 친정집 현관에 걸터앉아 나를 기다리시던 엄마의 입술엔 빨간 립스틱이 빼돌빼돌 발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낮빛에 역력했지만 립스틱 범벅의 말괄량이 소녀 같은 엄마의 함박웃음이 참으로 싱그러웠어요.

친정집에서 선정릉까지는 2.4km. 정상인의 걸음걸이로는 도보로 30분. 하지만 그날 우리는 선정릉 입구에 도착하는 데에만 무려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만큼 소요됐어요. 아무리 세상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땀 때마다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곳곳이 움푹 파인 아스팔트 길은 앞 못 보는 엄마에게 공포 그 자체였지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깜빡 걸음을 재촉할 때마다 한껏 초조해진 나는 엄마에게 그냥 택시를 타라고 했지만 그날따라 엄마는 완고했어요. 꼭 걸어서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선정릉에는 노란 개나리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엄마는 개나리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참 곱다”라고 손뼉까지 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옆에 나란히 선 내 볼엔 뜨거운 눈물이 연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로부터 2년 3개월, 엄마를 호스피스 병동에 모실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녀는 선정릉을 걸었어요. 나는 매주 이번이 엄마와의 마지막 산책이 될 수도 있으니 정성껏 모시자는 각오를 다졌지만 솔직히 매번 보는 똑같은 그 풍경이 때론 지루하기도 싫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앞 못 보는 엄마에게 선정릉은 하루는 에펠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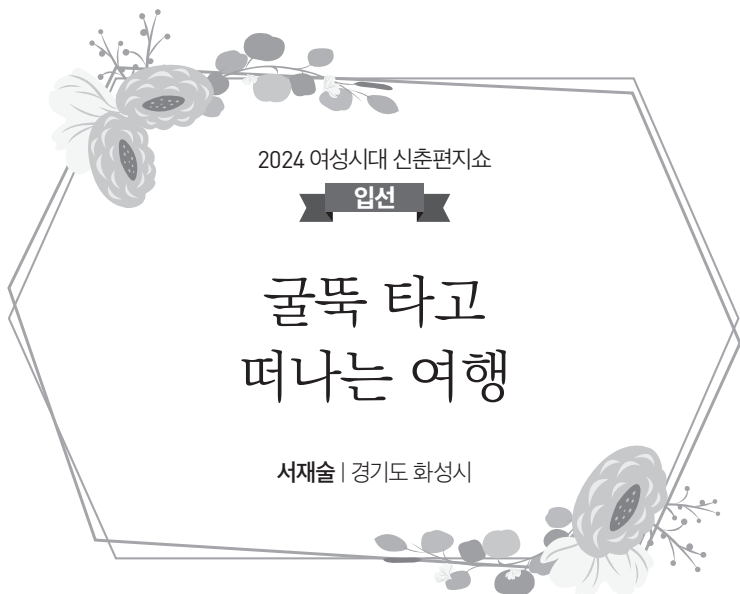
되고 또 하루는 타지마할 궁전이 되고 또 하루는 지중해의 푸르른 바다가 되었나 봐요. 엄마는 임종 직전에도 선정릉을 그리워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7년이 지났고 올해도 어김없이 개나리가 피었네요. 요즘 들어 부쩍 엄마가 그리워진 나는 홀로 선정릉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산책 후 으레 함께 들르던 선정릉 앞 전통찻집에서 대추차를 한 잔 시켜 놓고 앉아 있는데 여사장님이 “아휴~ 진짜 오래간만에 오셨네. 왜 오늘은 어머니 안 모시고 혼자 오셨어요?” 물어보십니다. “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라고 대답했더니 “그동안 눈먼 어머님 모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내가 효녀 딸이라 기억하고 있다우”라며 서비스로 유과를 잔뜩 내어주시네요. 나는 달디단 유과를 한입 베어 물고 이내 평평 울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돈이 흔한 세상이 되어서 여행이 참 쉬워졌지요. 중고등학교생들도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 음지의 누군가에게는 일본은커녕 동네 공원 산책조차 버겁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행의 본질이 ‘힐링’이라면 꼭 비싼 돈을 지불하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제 어머님 박갑남 여사는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이제 내 얼굴 잘 보이지? 나 너무 많이 늙어서 깜짝 놀랐어? 선정릉밖에 못 모시고 가서 정말 죄송해요. 그곳에서는 아버지랑 손 꼭 붙잡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섬진강 고향마을 가서 화사한 벚꽃 구경도 하고 국제선 타고 멀리멀리 미국도 유럽도 가고 이 땅에서 못 가 본 곳들 훨훨 날아 원 없이 다니세요. 그립고도 그립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빈둥거리며 컴퓨터 게임이나 붙잡고 사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혹시 지금 면접 좀 보러 올 수 있나요?”

그길로 난 콧노래 부르며 샤워를 하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면접을 나갔다. 2006년 4월 중순 오래간만에 밖에 나와 따스한 봄 내음을 맡으며 긴장된 걸음으로 면접을 보기로 한 곳으로 향했다. 이층 조그만 사무실에서 얼굴이 까무잡잡하신 사장님은 말없이 나를 위아래로 쪽 훑어보셨다.

“자네 혹시 고소공포증 있나?”

“네? 아니 없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지?”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고도 의아한 면접이었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딱 좋은 질문을 받았는지라 한편으론 걱정도 됐다.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별일 있겠어? 그냥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 사수를 따라 한 시간을 달려 방문한 첫 현장은 일산의 한 발전소. 난생처음 큰 굴뚝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굴뚝 높이는 약 백 미터. 바로 밑에서 올려다보려면 허리를 활처럼 휘어야 할 정도였다.

처음 굴뚝에 올라 바닥을 내려 봤을 때 눈을 질끈 감고 후덜덜거리던 다리가 아직도 기억난다. 주인 맘도 모르고 디스크를 추던 내 다리는 굴뚝을 내려올 때 달에 처음 착륙하는 닐 암스트롱이라도 된 것처럼 기쁘게 한 발을 내디뎠다.

그 후로 참 많이도 다녔다. 서울, 파주, 일산, 삼척, 서산, 청주, 울산, 부산, 여수, 제주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다. 큰 굴뚝부터 작은 굴뚝까지 굴뚝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다녔다.

일주일 중 4~5일은 항상 외근을 했다. 현장은 대부분 먼 곳에 있어 하루가 빠듯하기에 퇴근을 하려면 시간을 잘게 쪼개서 아껴 써야 한다. 지는 해를 보고도 내려오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아침을 밝히려 올라오는 태양의 머리꼭지기를 보는 날도 많았다. 지금도 차로 연간 삼만 킬로는 가뿐히 다닌다.

내가 하는 일은 이렇다. 대부분 유럽 제품인 환경 계측기기를 수입해서 굴뚝에 부착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다. 굴뚝에 부착된 우리 기기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성분을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환경부에서 24시간 감시한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환경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쩔 땐 아이들에게 “어때? 아빠 보일러 만드느 분들보다 더 멋있지?” 하고 콧대를 높인다.



세상에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란 건 알고 있지만 일은 생각보다 고되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은 일상이고 서러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날도 있다.

가끔 누가 떨어져 다치거나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어느 때보다 가족의 생계를 고민했다. 그럴 때는 녹슨 계단이며 사다리가 가느다란 여인의 여린 팔처럼 보이기도 해 뒤돌아서고 싶지만 담배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며 마음을 다시 다잡고 굴뚝에 오른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어찌면 내 땀은 그 누구의 땀보다 높은 곳에서 낙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상과 같은 반복되는 업무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어느 날 높은 굴뚝에서 스치는 차가운 바람에 콧물마저 말라버린 채로 드디어 내가 바라던 기술자에 도달했다고 느끼게 된 순간 비로소 뒤를 돌아 경치를 보게 되었다.

보령 앞바다에 내리쬐는 태양 빛이 마치 선물을 나눠주듯 바다 한 가득 쏟아내고 있었다. 그 빛은 바다에 닿아 마치 폭죽을 마구 터뜨린 하늘 같은 찬란함을 물 위에 수놓아 나를 축하해 주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온전히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 나만이 볼 수 있는 경치를 처음 즐기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어찌면 농땡이 같은 취미가 달라 붙었다. 여행. 사전적 의미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을 유랑하거나 휴식하는 일을 말한다. 도심 한구석 굴뚝에서 저 멀리 펼쳐진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기도 했고 산중 높은 굴뚝에서 눈 덮인 시골 풍경을 구경하기도 했다. 라면 공장의 굴뚝에서 라면스프 냄새를 맡으며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발전소에서 배로 석탄을 들여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기도 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땀 사람이며 차며 건물이며 작아진 모습을 보고 멀리서 보면 이리 작은 세상을 우쭐대며 구경했다.

그중에 인상 깊거나 멋진 지역에는 여지없이 우리 여왕님과 두 작은 공주님을 모시고 다닌다. 티브이에서 가끔 우리가 방문한 곳이 나올 때 아이들이 “아빠, 저기 우리 갔다 온 데 나온다”라고 할 때면 나름대로 헌신하는 가장의 뿌듯함을 느낀다.

열심히 굴뚝에 오른 만큼 우리 회사는 그동안 꽤 성장했다. 우리 사장님은 열심히 일하는 나를 어여빠 여겨 주셨고 난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더 큰 기술을 배웠고 그곳들의 굴뚝에서도 틈틈이 경치를 바라볼 수 있었다.

두바이의 태양은 생각보다 더 거대했고 이글거리는 공기가 보일 정도로 숨 막히게 뜨거웠다. 사막 한가운데 높디높은 굴뚝 위에서 모래 폭풍을 맞으며 낮선 세상을 한 바퀴 둘러본다. 저 멀리 에메랄드빛을 한껏 머금은 고요한 푸른 바다와 마치 모래사장에 아이들이 꽃아 놓은 듯한 높디높은 빌딩들이 태양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뿜었다. 그것들이 자랑스러운 듯 앞다퉈 더 큰 빌딩들을 짓고 있는 새로운 도시의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냈다. 나는 그곳에서 작자미상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했다. 아마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굴뚝이 가져다준 찰나의 조그맣고 소중한 여행들이다. 몇 번인가 그만두고 싶었던 일을 이 조그만 여행들이 위로해 주었고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나에게는 굴뚝이 정말 고마운 존재지만 유독가스를 배출하기에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참 많이도 받는다. 곳곳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나는 안다. 누구보다도 오래 같이 함께했다. 회사나 주변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고 때론 소리 질러도 묵묵히 들어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내게 등을 내주었다.

굴뚝은 죄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모든 것을 속에 끌어안았을 뿐이다. 온갖 쓰레기나 화석연료를 태워 사람들이 쓴 오물을 처리하고 전기를 만들고 남은 독한 가스를 홀로 묵묵히 견뎌내며 저 멀리 하늘 높이 온힘을 다해 불어낸다. 어쩌면 굴뚝은 쓸모 있었던 무언가가 자신을 연료로 삼아 쓰임을 다하고 연기가 되어 하늘로 여행을 떠나는 통로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연기들처럼 굴뚝도 힘들고 지쳐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간 너의 고생을 다 알고 있다고 위로해 주며 내가 언제까지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내게는 소중한 조그만 여행의 추억들이 내 마음의 캐리어에 차고 넘치도록 남아있다. 이 터질 듯한 캐리어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여행의 추억을 담으려면 이참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더 소중히 내 일을 사랑해야겠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이 여정의 끝에 우리 가족의 행복과 나의 건강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나처럼 굴뚝으로 여행을 떠나고 계실 동료들과 업계 분들에게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다.

“우리의 오르내림이 대한민국의 깨끗한 공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끈적이처럼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내려와 따뜻하게 반기는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 가지시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 해 가을 엄마랑 집을 나설 결심을 했다.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지체할 수가 없었다. 종일 누워 계시는 엄마를 일으켜 휠체어에 옮기면서 엄마 귀에 속삭였다.

“엄마, 바다에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몸이 불편하여 걷지 못한 채 엄마는 20년 가까운 세월을 침대에 누워 계시며 생활했다. 식사 시간에 잠시 일어나 앉으면 엄마는 마른 입을 혀로 두르며 바다 타령을 하시곤 했다.

“아고, 답답해! 바다에라도 가면 얼마나 좋을 거냐!”

그래도 그땐 의사 표현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 엄마도 나도 행복한 시절이었다. 파킨슨병이 덮치면서 엄마는 아예 말을 안 했다. 불려도 대꾸가 없는 엄마를 보며 바다에 모시고 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만 수없이 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 잠시 차 타는 시간도 힘들어

하는데 장거리를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두려웠다. 조금 더 좋아지면 가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엄마의 건강은 악화 일로에 내달았고 미룬다는 자체가 미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에 엄마를 안 모시고 갈 수도 있다. 그깟 바닷소리 안 들은 것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엄마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오르니 어쩔 수가 없었다. 머지않아 떠날지도 모르는 엄마 눈에 파란 바다를 담아 드리고 싶었다. 집에서 목포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사오십 분이면 가겠지만 엄마를 태우고 절대 그렇게 달려서는 안 된다. 가다가 몇 번의 휴식이 있어야 한다. 엄마 용변 처리도 해드리려면 기저귀며 물티슈도 챙겨야 한다. 죽도 쑤어서 보온병에 담아야 한다. 휠체어 타이어 압력도 점검해야 한다. 엄마 약도 챙기고 행여 모르니 혈당계도 빠뜨리면 안 된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엄마 옷을 입히면서 끊임없이 조잘댔다.

“엄마, 바다에 가는 거야. 병원 아니야. 좋지? 엄마랑 나랑 둘만 가는 거야!”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동생들에게는 알릴 생각을 아예 안 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바빠 준비해서 집을 나섰다. 출발하기 전 뒷좌석에 안전벨트로 야무지게 몸을 붙들어 맨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 눈에는 여전히 생기라고는 없었다.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어찌면 큰일을 치를 수도 있겠다 싶은 두려움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새처럼 훨훨 날아서 바다를 날고 싶다는 엄마의 그 말! 말들이 고막을 때리며 떠날 것을 종용했다.

차가 복잡한 동네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려 엄마를 돌아보니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다. 차만 타면 늘 엄마는 눈을 감고 있다. 주무신다. 남편을 지나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엄마 곁에 앉아서 엄마 다리를 주



물렀다. 계속 앉아 계시면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엄마 다리가 아파드는 것을 알기에 열심히 주무르며 엄마를 깨웠다.

“엄마~” 대답이 없다. 늘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아주 어릴 때도 그랬다. 몸이 불편한 엄마는 내가 부를 때면 귀찮아서 그러는지 대꾸하는 것을 안 했다. 당뇨로 무기력한 엄마를 대신하여 집안일도 해야 했고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엄마의 간병을 자처했다.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동생들은 말했지만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엄마가 행여 부당한 대접을 받을까 싶어 긴 세월을 엄마 곁에서 보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만 계셨으면 싶었다.

목포 북항에 도착해서 엄마를 휠체어에 옮겼다. 따스한 햇살에 감상하며 엄마와 나는 바다를 향해 앉았다. 주변 모든 것에 무관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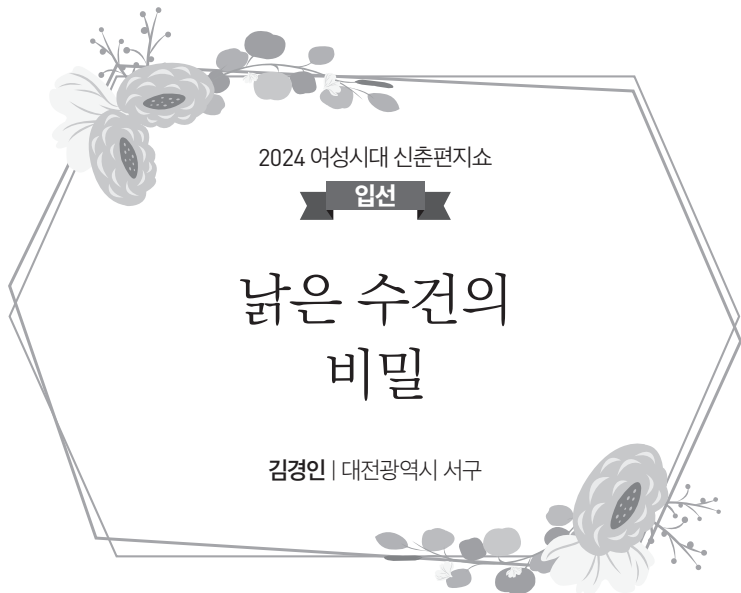
엄마가 눈을 뜨고 파란 바다를 보고 계셨다. 하늘을 향해 포효하고 싶었다. 울 엄마가 바다를 보고 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바다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해냈다!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에게 죽도 먹여 드리고 팔다리도 주물러 드렸다. 그렇게 한 시간 가까이 우리는 그 바다를 향해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콧노래를 부르다 말고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자꾸 앞으로 쏠렸다. 불안해서 미친 듯 광주를 향해 달렸다. 집이 아닌 평소에 엄마가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응급처리가 시작되었다. 수액이 팔에 꽂히고 엄마는 거의 반응이 없었다. 엄마는 그 시간 이후로 집에 오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3주 후에 내 곁을 떠나셨다.

그날 집을 나서 차를 탄 것이 엄마 갈 길을 재촉한 것이 맞다.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 거의 약 처방만으로 연명하고 계신 엄마였는데 힘들었던 것이다. 나 때문이다. 내 욕심이 엄마를 더 일찍 가게 한 것이다. 하지만 매일 침대에 갇혀 식은땀만 흘리며 누워 계시는 엄마에게 바다를 보여 드린 것이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달래야 했다.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엄마에 대한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감정을 동여댔다. 남편에게도 엄마와 목포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가슴에 묻기로 했다. 엄마를 보내며 엄마를 향해 내 마음을 날렸다.

“엄마, 이제 진짜 자유롭게 날아서 아빠 곁으로도 가고 바다에도 가요! 이제 엄마만의 여행이야! 평생 아파서 못 해 봤던 여행! 이제 맘껏 여행을 떠나!”

살면서 내 그날의 선택에 대한 생각을 수없이 했다. 엄마를 모시고 떠난 그 길에 대해서.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낡은 수건의 비밀

김경인 | 대전광역시 서구

**50** 여 년 전 그날! 하늘이 유난히도 파랬다. 우리가 타고 갈 버스 앞 유리에는 ‘설악산 수학여행’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종이가 내 가슴을 뛰게 했다.

배웅을 나온 엄마들 뒤쪽으로 머리에 낡은 수건을 쓴 초라한 우리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오신다는 말이 없었는데, 엄마는 누가 보면 어찌려고 저런 수건을 쓰고 학교 앞까지 오셨을까?’

나는 창피해서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렇게 떠난 수학여행! 그 3박 4일 동안 나는 엄마도 집도 모두 다 잊은 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꿈만 같았던 수학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동네 미장원 앞을 지나는데 미장원 아주머니가 급하게 나를 불러 세웠다.



“너저 어매 머리 봤나? 니 때문에 그 긴 머리 자른 거 아직 못 봤나? 니 수학여행 무슨 돈으로 간 긴지 아나? 너저 어매 머리카락 판 돈이다.”

아주머니는 쉬지도 않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계속 하셨다.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머리카락을 팔다니요?”

아주머니는 혀를 끝끝 차며 미장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럴 리가 없어. 아줌마가 뭔가 잘못 아신 거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통조림 공장으로 달려갔다. 입구에서부터 포도 냄새가 진동 했다. 엄마는 여전히 머리에 수건을 쓰신 채 열심히 포도 껍질을 벗기고 계셨다. 그러나 나는 엄마를 부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수건에 가려져 있는 엄마의 머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용기는 더욱 없었다.

언젠가 골목에서 들었던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머리카락 팔어~ 머리카락 팔어~.”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안 쓰던 머릿수건을 쓰셨구나. 내 수학여행비가 우리 엄마 머리카락 판 돈이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다시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도 방향도 모르는 채로 자꾸만 뛰었다.

‘엄마 바보! 엄마는 바보야! 나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하지. 그까짓 수학여행이 뭐라고. 돈 없어서 못 보내준다고 하지. 그랬으면 엄마 머리 안 잘라도 됐잖아!’

눈물이 비가 오듯 쏟아져 내렸다.

선생님이 설악산 수학여행에 대해 말씀하실 때 친구들은 좋아서

소리를 질렀지만 난 달랐다. 수학여행은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 뒤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조차 어려워진 우리 집 형편에 수학여행은 사치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수학여행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엄마 마음만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순자네 엄마한테 수학여행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다.

“수학여행 간다며? 왜 말 안 했니? 수학여행 가도 돼. 엄마한테 돈이 조금 들어올 데가 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근데 용돈은…”

엄마가 말끝을 흐리셨다. 나는 너무 좋아서 꼬마아이처럼 폴짝폴짝 뛰었다.

“엄마, 정말? 정말이야? 나 수학여행 가도 돼? 내일 학교 가서 진짜 간다고 말해도 돼? 용돈은 필요 없어.”

그날 나는 수학여행을 가도 된다는 엄마의 그 말이 너무나 좋아서 그다음엔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엄마가 머리에 수건을 쓰기 시작한 것이 여행비를 주시던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어릴 적 생각이 영화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긴 머리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고 한복을 즐겨 입으셨다. 아버지는 엄마의 그 모습을 유난히도 좋아하셨다. 나도 엄마의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 머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던 엄마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는 나 때문에 자존심 같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야 했고 우리는 엄마의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슬퍼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눈물이 났다.

나는 미장원 아주머니에게로 다시 갔다.

“아줌마, 그럼 우리 엄마 머리카락은 어디로 갔어요?”

아줌마가 말씀하셨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이미 ‘머리 팔이’ 아저씨에 의해 가발 공장으로 팔려 갔다고. 공장에서 가발로 만들어지면 외국으로 수출되는 거라고.

바보 같은 나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몰래 숨어서 울기만 할 뿐.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날이었다. 날씨 탓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걸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엄마가 머리에 쓴 낡은 수건을 벗으셨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엄마의 짧은 머리와 마주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가슴이 쿵하고 소리를 냈다. 어린 막냇동생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 엄마 머리 왜 그래? 머리가 없어졌어. 엄마 머리 어디 갔어?”

그러자 엄마는 애써 태연한 척 말씀하셨다.

“아이고 시원해라. 머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시원하고 편할 수가 없네. 어때? 엄마 짧어 보이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보았다. 엄마의 두 눈에 맺힌 눈물을. 나는 엄마를 껴안고 한참 동안 같이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어... 그까짓 수학여행이 뭐라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가난해서 자식 고생시키는 부모가 미안하지 자식이 뭐가 미안해. 제일 먼저 네 아버지 생각이 나드라. 근데 좋아서 폴짝폴짝 뛰던 너를 생각하니깐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머리는 다시 기르면 되지만 한 번

뿐만 수학여행은 지나가면 기회가 다시 안 오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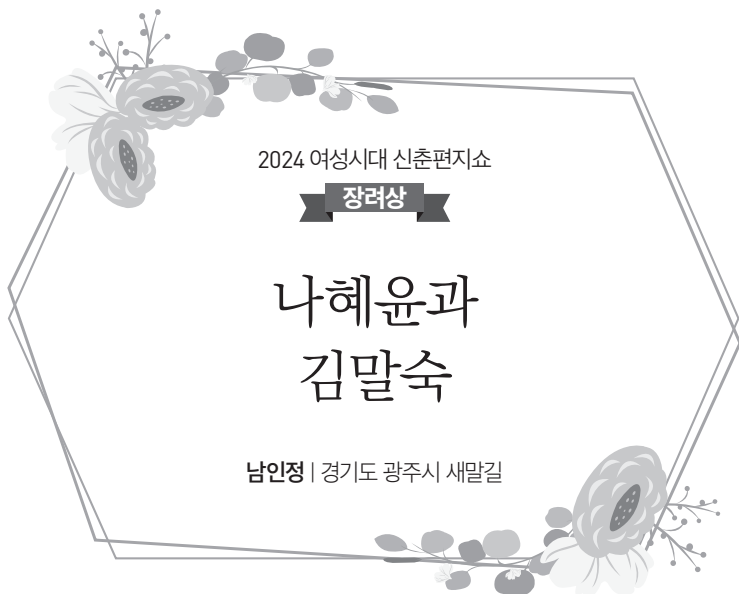
엄마는 그날 학교 앞에서 내가 탄 수학여행 버스가 ‘뿡’ 하고 떠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며 웃으셨다.

엄마의 그 마음도 모르고 엄마가 쓴 낡은 수건이 창피하다고 버스 안에서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던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뒤로도 엄마는 쪽 머리를 기르지 않으셨다. 엄마는 오히려 이제 짧은 머리가 편하다고 하셨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의 그 마음을. 그즈음 아버지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으니까.

여행을 좋아하셨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제주도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는 가여운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아주 먼 곳으로 길고 긴 여행을 떠나셨다. 돈이 없어 밥을 굶지 않아도 되는 곳, 빗쟁이들이 몰려와서 괴롭히지 않는 곳, 자존심 같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지 않아도 되는 곳, 아프지도 않고 먼저 가신 아버지도 다시 만나셨을 그곳. 어쩌면 그곳에서 엄마는 예전처럼 쪽 찐 머리에 곱게 한복을 입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개업 선물로 수건을 주면 글씨가 새겨져 있던 엄마의 낡은 수건이 생각난다. 엄마의 쪽 찐 머리와 맞바꾼 내 여고 시절 수학여행의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자식은 절대 알 수 없는 엄마의 그 소중한 사랑이 생각나서 눈물짓는다. 오늘도 수학여행을 떠나던 그날처럼 하늘이 파랗다.



**누** 군가 그랬지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열어보기 전에  
 는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저  
 혼자만의 고민의 무게만으로도 가슴에 재깍거리는 폭탄줄을 걸고  
 다니는 것 같은 불안의 시기인 사춘기에 하필 제가 집어 든 초콜릿은  
 달달한 우유 한 방울 섞여 들어가지 않은 씹쓰름한 맛의 다크 초콜릿  
 이었습니다.

지구 위에서 그래도 열여섯 해를 살아낸 아이에게 가장 혹독한 빙  
 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삼십팔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성남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들어 보지 못한 남양  
 주시 교문리라는 곳으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따라 이사를 가게 되  
 었습니다. 전학 시켜 줄 테니 며칠만 통학하면 된다던 약속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자기 인생의 무게만으로도 벅차서 나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것어요. 이런 외진 시골집의 단칸방을 전전해야 할 만큼 우리 집은 가난해졌으니까요.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에 할머니는 잠에 취한 나를 몇 번이나 깨우고는 흐린 부엌 불빛 아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려면 그렇게 이른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집을 나와 어스푸레한 산길을 한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거장에서는 언제 올 지 모르는 버스를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종점에 가까운 정거장이라 버스만 타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의 숫자가 확인되는 그 순간 마음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창가 자리에 앉아 이내 눈을 감습니다. 아직도 밖은 어둑어둑하기만 합니다. 청량리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청량리역에 다 왔나 봅니다. 몽롱한 정신이 반사적으로 깨어나자 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동으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이제 570번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종점으로 가야 합니다. 종점이기엔 자리에 앉아갈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의 여행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창밖은 어느새 환해졌습니다. 도시는 모든 것이 낮설고 시끄럽습니다. 나의 추억이 묻어 있는 정겨운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풍경은 그저 훗훗 지나갑니다.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다 또다시 잠이 듭니다. 한참을 졸다가 퍼뜩 정신을 차린 나는 종점을 두어 정거장 남

기고 상대원에서 내립니다.

어느새 시간은 여덟 시를 훌쩍 지나있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으려면 언덕 꼭대기를 뛰어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노는 일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버스를 타고 가도 언제나 깜깜한 저녁에 도착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정거장에서 집까지 가는 길은 무서운 길이 됩니다. 찾길 주변에 있던 환한 가로등 빛도 산 옆에 인접한 셋길로 들어서면 달빛으로 바뀝니다. 버스에서 같이 내린 여인들이 하나둘씩 갈림길에서 사라지고 나면 때론 혼자서 산길을 돌아 들어가야 하는 좁은 길이 내게는 가슴이 졸여들 만큼 무섭기만 합니다. 더 무서운 날은 낮선 남자와 돌만 남겨질 때입니다. 그럴 때면 울고 싶을지 만큼 어둠은 무섭기만 했습니다. 혹독한 가난과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힘든 통학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검은 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함이 점점 나를 잠식해 갔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도 시간이 지나자 지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에 논두렁을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웬 여학생 두 명이 나를 보며 놀란 얼굴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친구 나혜윤과 김말숙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반대편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쿵닥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외로웠던 터에 너무도 반갑기도 했던 두 모순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내

등에 대고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숨이 턱에 찼습니다. 어느새 친구들은 내 등을 잡았습니다. 나도 친구들도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인 말숙이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나를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고는 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짝인 혜윤이를 찾아가 같이 가서 나를 좀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퇴학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내일부터 꼭 학교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하며 눈두렁 길 위에서 한참을 나를 설득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그 어린 여학생들이 그 먼 길을 주소 한 장 들고 찾아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낯선 아이 둘이 만나 두 번의 종점을 지나야 하는 버스를 타고 친구를 다시 학교에 오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의 단짝 친구인 나혜윤. 나의 가난과 함께 해준 내 인생의 친구 나혜윤. 1학년 때부터 함께 목욕탕에 다니며 엄마 대신 내 등을 밀어준 나의 친구.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저녁엔 내 손을 끌다시피 해 시장엘 데리고 가서 하얀 브래지어를 사준 나의 친구. 겨울이면 자기 호주머니에 내 차가워진 손을 넣어주던 나의 친구. 꿀을 까서 반을 나눠 줄 때면 언제나 내게 더 많이 떼어주던 나의 친구 혜윤이. 그 친구가 이번에도 먼 길을 찾아와준 것입니다.

차비가 모자라 회수권을 아끼려고 중간 지점까지 걸어가야 할 때마다 언제나 동행을 해준 나의 친구 말숙이. 영선이라는 예쁜 본명보다도 우리가 불러주던 '말숙'이라는 별명을 더 좋아해 주던 착한 나의 친구 말숙이. 내게 마이클 잭슨 음악을 필두로 팝송의 세계와 야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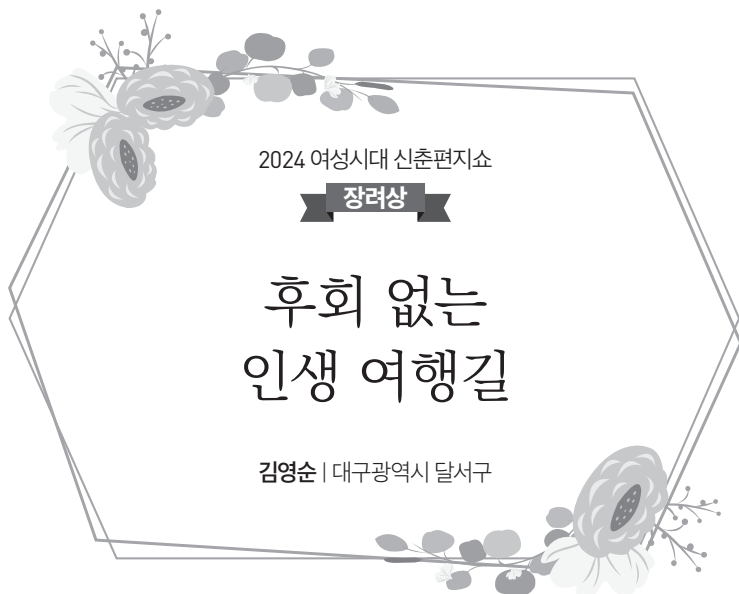
짜릿함도 알려준 나의 친구 말숙이. 재치 나는 말솜씨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웃음을 터트려주어 학교 가는 일을 그래도 즐겁게 해주던 나의 친구 말숙이. 그 친구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준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낯설고 두렵기까지 한 계획에도 없던 여행길이었을까요. 오직 나의 친구를 향하여 걷고 물어보고 또 걷고 버스를 타고 또 물어보고 또 다른 버스를 타고 그렇게 낯선 풍경들 속을 나를 생각하며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방문 덕분에 나는 다시 학교엘 나가게 되었고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나의 친구 나혜윤과 김말숙의 덕분입니다. 혜윤아, 고마워! 말숙아, 고마워! 이제라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너희들 덕분에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 참으로 소중한 순간은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시간의 등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만큼 삶에 어색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나는 끝내 고맙다는 말조차 그 날도 그 이후로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갑작스레 미국 이민을 가게 되어 십육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전화번호가 다 바뀌어 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부탁드려 봐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친척 하나 없는 낯선 타국에서 살아내느라 정신 없이 사는 동안 소식이 그만 끊기게 된 것이지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여행길을 소중하고 따듯한 추억으로 감싸준 나의 친구 나혜윤과 김말숙 정말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혹독했던 나의 사춘기 여행을 잘 마치고 다음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소중한 나의 친구! 너무도 그리운 나의 친구! 꼭 다시 만나고 싶구나!



# 후회 없는 인생 여행길

김영순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강** 산이 네 번 바뀌고도 다섯 해가 되었다.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시장판 여행길에서 나는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평생 파먹어도 걱정 없는 작은 곳간도 채워져 있다. 무엇에 미련이 남아 전대 차고 찌질한 모습으로 시장바닥을 못 벗어나는지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뼈저리게 가난했던 지난날이 내 발목을 잡는다.

초등학교 6학년 때다. 한 반에서 공부해도 진학반 친구들은 칠판 글씨가 잘 보이는 앞자리에 앉고 나는 비진학반이란 이유로 뒷자리에 앉으니 키 큰 친구들에 가려서 칠판 글씨도 보이지 않았다. 진학반 친구들은 방과 후에 남아서 과외 공부를 했다. 난 방과 후 과외 공부는 커녕 수련장이라는 문제집도 한 권 없었다.

1966년 중학교 입학시험 원서를 작성하러 부모님들이 오셨다. 앞집 친구 K는 학교에서는 과외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대학생에게 개인 수

업을 받았지만 성적이 모자라 원서 낼 학교가 없다고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다. K 엄마는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보컬로라도 보낼 테니 원서만 써 달라고 담임선생님께 사정하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기에는 성적이 아까우니 시험이라도 한번 쳐보라고 하셨다. 선생님 사비로 여자중학교에 입학원서를 써 주셨다. 기대도 없이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이 뭔지도 몰랐다. 입학금을 마련 못 하시는 부모님 마음 아플까 봐 공부하고 싶다고 중학교에 보내 달라는 말은 한마디 꺼내지도 못했다.

14살 어린 나이에 상급학교 진학하려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았다. 언니도 오빠도 없는 만딸이 혼자 길을 찾기에는 미로였다. 옆집에 사는 대학생 언니가 나를 찾았다. 정규 중학교는 아니지만 공납금 없이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교장선생님께 중학교 합격하고도 진학 못 하는 사정 얘기를 했단다. 공납금 면제해 줄 테니 학교에 오라고 하셨다. 뭘 듯이 기뻐했다. 비록 정규 중학교는 아니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부분 대학생 선생님이었다. 모든 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 주셨다. 옆집 대학생 언니는 국어 선생님이었다.

학교에서는 상업 시간에 주산과 부기도 배웠다. 주산 2단 유단자가 되면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특기생 혜택을 받는다는 정보도 얻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손가락 움직임이 빠른 나는 같은 반 친구들보다 빨리 2단 유단자가 되었다.

야간 고등학교에 가려고 낮에 일할 수 있는 사환 자리를 찾아 나섰다. 학교에만 갈 수 있다면 어떠한 곳은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공서 사무실 등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 좀 시켜 달라고

했다. 인맥이 없는 내가 일할 곳은 없었다. 때마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출길이 열린 제일모직 여공 모집에 응시했다. 동생들이라도 돈 걱정 없이 공부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직 공장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웠다. 친척 중에 관공서나 은행에 인맥이 있는 친구들은 사환으로 취직해서 야간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라고 어렵게 여상을 졸업한 친구들은 대부분 은행이나 공기업 정식 직원이 되어 신분 상승해서 결혼도 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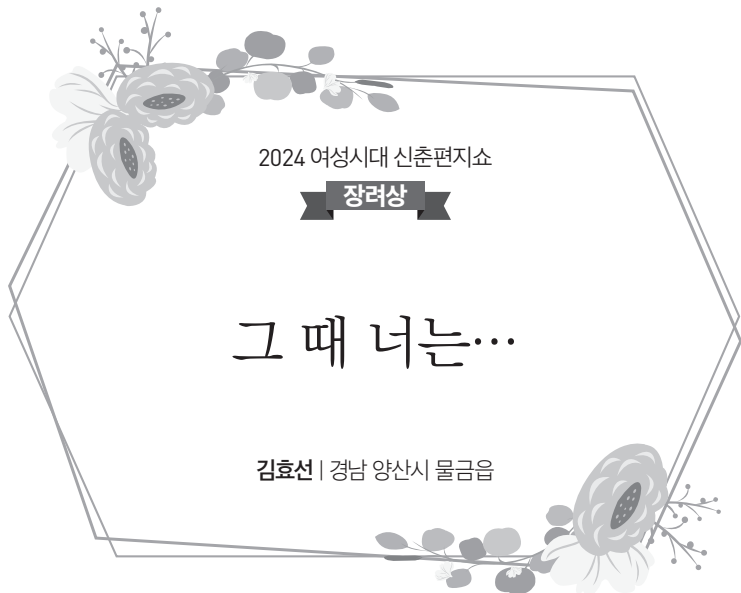
뒷집 아저씨 중매로 가난하지만 건강한 청년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 엄마가 되었다. 우리 두 아이 공부시키려면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근처 전통시장에 고무통 하나 놓을 자리를 찾아다녔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만동서네 동네에 신설 시장이 생겼다. 망설임도 없이 세 살 된 딸아이 데리고 백일 된 작은 아이 등에 업고 신설 시장 모퉁이 노점에 좌판을 폈다. 울도 담도 없는 난 달 가게였다. 장사 밑천이 없어서 멸치 몇 상자랑 도시락 반찬용 쥐치 포채 몇 가지가 고작인 아주 작은 가게다. 어설플기 그지없는 노점 가게에는 찾아주는 손님들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진열 상품이 늘어났다. 멸치 두어 상자로 시작한 가게는 건어물 종류가 늘었다. 노점 가게에는 아이를 잠시 누일 공간도 앉혀둘 자리도 없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배가 고프지 칭얼댄다. 하루 종일 붉은 젖은 아이에게 먹이려면 젖줄기는 아이 얼굴에 물총 쏘듯이 쏘아댔다. 깜짝 놀란 아이가 배가 많이 고프는지 눈을 감고 엄마 젖가슴으로 파고든다. 주린 배를 채우고는 엄마 얼굴 쳐다보고 웃음 지으며 웅얼이한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나의 못 배운 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노점 가게 일 년 만에 꿈에만 그리던 방 하나 달린 상가 점포로 옮

졌다. 가넷방은 한 평 남짓하게 작아도 우리 네 식구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가넷방에서 셔터만 올리면 많은 손님이 밀려오듯 찾아왔다. 신설 시장이다 보니 필요한 물품이 많았다. 햇멸치가 출하하는 여름에는 질 좋은 멸치를 팔았다. 김장철에는 김장부속품인 생강 청각 멸치젓 새우젓을 팔았다. 돈이 될성싶은 것은 다 팔아도 단 하나 양심은 팔지 않았다.

뒤볼 새 없이 앞만 보고 살았다. 진짜 눈 한 번 깜박한 것 같은데 4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흘러간 시간만큼 시장판 여행길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학교 급식으로 도시락 반찬용 쥐포채는 소비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산은 없다. 강원도 황태 역시 러시아산이다. 제수용품도 신토불이 우리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가 터지고는 제사 풍습도 많이 바뀌었다. 4대 봉제사를 지내던 가정에도 일 년에 한 번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설, 추석에는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산소를 찾거나 여행을 다니는 가정이 늘어난다.

시장판 여행길에서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 곳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된 아들과 딸이 내 못 배운 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꿈을 이루어 주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지난날이 뼈에 사무쳐 앞만 보고 살았다. 가족들이랑 지인들은 이제 가게 그만하고 장사하느라 못 가본 곳 찾아 여행 다니면서 남은 생 즐기고 살라 한다. 멈추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으니 쉬지를 못한다. 짧은 책가방 끈에 주눅 들고 기죽어 있던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곳이다. 배움에 열등의식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사를 한다. 시장판 여행길에서 만나는 천층만층 구만 층인 고객과의 만남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내가 제일 당당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삶을 즐기며 살아간다.



**19** 88 추운 겨울날 말라깽이 8살 소녀가 집 주위를 헤매고 있다. 미로와 같이 골목골목을 지나다니며 집마다 벽을 손으로 더듬고 있다. 소녀는 조그마하게 속삭인다.

“아빠가 죽었으면 차라리 아빠가 죽었으면...”

시골에서 나고 자랐던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로 나오지만 막상 아빠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집에서 매일 술만 먹는다.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장사를 나간다. 장사에 ‘장’ 자도 몰랐던 엄마는 해가 갈수록 더욱 억척스럽게 일한다. 그게 아빠를 자극했나 보다. 아빠와 엄마는 매일 싸운다. 그날도 엄마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떼 와서 손질하였고 아빠 아침상을 봐주었다. 하지만 아빠 눈에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김없이 밥상이 없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소녀는 무섭다. 엄마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얼른 집 밖

으로 나온다. 그리고 하염없이 집 주위를 돈다. 싸우다가 언젠가 아빠는 잠이 들 거고 그럼 엄마는 장사를 하러 갈 거기 때문이다. 이제 집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길고양이처럼 까치발을 하고 소녀는 집으로 들어간다. 아빠 근처에는 가면 안 된다. 혹시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데 아빠가 이상하다. 숨소리조차 안 들리는 것 같다. 아빠는 술 먹고 뿔아떨어져 자면 잠꼬대를 하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정말 아빠 곁으로 가보기 싫지만 아빠한테로 간다. 어찌지? 아빠가 숨을 안 쉰다. 그리고 그다음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소녀는 평생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못했다. 혹시나 소녀가 소원을 빌어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나 해서 말이다.

소녀는 항상 아빠가 보고 싶다. 술에 취한 아빠라도. 그냥 옆에만 있어 주길 바랐다. 소녀는 아빠한테 묻고 싶다.

“아빠, 하늘나라에서 술 안 먹고 잘 있어? 효선이 보고 싶지 않아?”

하염없이 우는 소녀를 내가 가서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효선아, 너 때문에 아빠가 죽은 거 아니야. 알겠지?”

1998 더운 여름날. 교실에는 천장에 선풍기 4대만이 돌아가고 있다. 이제 고2인 여학생은 공부를 하고 있다.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 3교시가 끝나면 여학생은 도시락을 혼자 조용히 얼른 먹는다. 그리고 4교시가 끝나는 대로 도서관으로 간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배가 계속 아프다. 공부를 못 할 정도로 너무 아프다. 할 수 없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간다. 집에는 엄마가 없다. 엄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갈치에서 생선을 떼와서 대구 서문시장으로 간다. 그리고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오신다. 엄마가 올 때까지 여학생은 배를 잡고 운다. 달리 방법이 없다. 배가 너무 아파서 눈도 못 뜰쯤에 엄마가 왔다. 엄마가 여학생을 데리고 병

원으로 간다. 맹장염이었다.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면 복막염이 되었을 것이다. 엄마는 수술한 다음날도 장사를 하러 간다. 그럼 여학생은 혼자서 밥도 먹고 링거를 끌고 화장실에 간다. 그럼 링거를 통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입원하는 내내 여학생은 공부를 한다. 엄마도 없이 수술 후 회복과 상관없이. 그 여학생 곁으로 이제 내가 가서 옆에 있어 주고 싶다. 그 여학생을 간호해 주고 싶다. 배가 많이 아팠을 거고 생애 첫 수술이어서 많이 두려웠을 것이다.

“효선아, 많이 아팠지? 이제 내가 밥도 먹여주고 내가 링거도 끌어줄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공부도 하지 마!”

2018 쓸쓸한 가을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38살의 아줌마가 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처음에는 암인 줄 알았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 암은 아닌데 가슴에 물혹이 많아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한다. 아이들이 어린데 혹시 물혹 제거 수술하다가 못 깨는 것은 아닐까? 아이 둘 다 제왕절개 수술로 낳아서 마취 깨는데 꽤 고생했는데. 물혹을 제거하고 나니 자궁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단다. 그게 암이 될 수도 있으니 또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걸까? 리모컨을 어디에 뒀더라? 휴대폰은 또 어디 있는지? 자주 깜빡깜빡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 보인다. 결국 갑상선 수치까지 올라갔다. 과연 이 아줌마의 모든 병은 무엇 때문일까? 아줌마의 남편이 말하는 아줌마의 성격이 나빠서 그럴까? 시어머니도 많이 아프셨다. 갑상선암, 자궁적출,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힌 것까지. 그 시어머니가 아픈 이유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못나서 그렇단다. 평생 그것을 보고 자란 남편이라 그럴까? 아줌마가 아픈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줌마가 아픈 것도 다 아줌마 잘못이란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단다. 유독 아줌마 네가 많이 아프단다. 그랬



다. 아무리 아파도 아침밥은 차려야 한다고 했다. 그랬다. 아무리 아파도 시댁 식구가 있으면 웃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 그 아줌마는 사람일까? 아님 인형일까? 이런 남편이랑 살아서 아픈 것은 아닐까? 그럼 이 아줌마는 왜 결혼이라는 것을 했을까? 첫째를 낳고 남편과 헤어질 위기였을 때 친정엄마가 그랬단다.

“니, 첫째 안 보고 살 수 있나? 있으면 이혼하그라!”

그랬다. 첫째 때문에 어찌어찌 살았다. 그리고 왜 둘째는 생겼을까? 두 아이의 육아로 우울증이 심해서 매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런데도 시간이 남으니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고 남편이 그랬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남편은 정말 남이 되었다. 남편은 본인이 이런 아줌마의 가족보다 남편 자신이 이미 속해 있던 시댁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줌마는 아이들에게 의존했던 것 같다. 몸과 마음이 아팠던 아줌마를 일으켜 세운 것도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이 있어서 힘든 아줌마는 살아간다. 그 아줌마의 곁으로 다가가 이야기 해 주고 싶다.

“효선아, 지금을 살자! 내일을 생각해서 참지 말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자!”

2024 화창한 봄날을 기대하며 1988, 1998, 2018년으로 인생의 한 토막들을 여행해 보았다. 항상 웅크리고 남의 눈치만 보고 있는 내가 보였다. 속이 상했다. 그러지 말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가서 내가 말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2028년으로 가보고 싶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컸을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집으로 는 출근하고 싶지 않다. 매일 회사로 출근하고 이제 다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순순히 김효선이라는 이름으로 즐겁고 행복한 지구 여행을 즐기고 싶다.

손편지

## 갓생

백순이 | 충북 충주시

지인의 중매로 나는 스물한살. 남편은 스물네살 나이에 1973년 12월 30일 결혼을 했다. 당시 남편은 전역을 3개월 앞둔 군인이었지만, 시아버님 환갑이 음력 정월에 있는데, 환갑상 받으실때에 절을 올릴 여리가 왔는데 더 좋겠다며, 어찌나 제육을 해시는지, 맛선본지 한달만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결혼연인으로 맺어진 가족은 시부모님 두분과 남편위로 결혼한 누님한분. 고등학교졸업을 얼마 앞둔 대학교 시험에 합격한 큰 시동생,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시동생이 있었다.

전기도 들어 모지않는 농촌부엌 기둥엔 연기로 까맣게 그을린 호야등이 걸려있었고, 각 방마다 석유를 넣고 사용하는 등잔불이 있었는데 그후 1년 반정도 지나서 이곳 농촌에도 전봇대가 세워지고 동네집집마다 환하게 전기불이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오고 1년 지나서는 전기 밭솔도 사고 전기 다리미도 살 수가 있었다. 나는 결혼할 때 철로 된 테이블을 사왔는데, 화랑대 전벽상으로 비가 오는 날은 책을 읽

기도 하고 밤엔 울기도 했다.

대학교 입학하는 큰 시동생이 가져갈 이불이 마땅치 않아서 내 새 이불을 내주게 되어도, 남편이 아끼는라고 책상위에 배는 남편의 예물시계를 대학생 시동생이 손목에 차고 나가면서 이다음에 제가 결혼할 때 예물시계 받으면 형님 줄게요. 친점엄마가 다니러 오셨다가 힘들게 사는 이 딸이 안스러워서 주고 가진 돈 이천원 중에 어느날 시내에 나갔다가 남편 허리띠를 천원을 주고 하나를 사다가 벽에 박힌 옷걸이용 못에 걸어두었었는데, 농사일에 고단하게 지내면서 외출을 못했으니 한번도 사용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남편이 묘사된 허리띠가 눈에 보이질 않았다. 이렇게 대학생 시동생이 왔다 간 뒤엔 좀 관찮은 물건은 죄다 가져가도 그때는 그랬다.

그래야만 하는 줄로만 ~

모든 경제권은 시아버님이 운영하셨는데, 땅 마지기라도 좀있는 촌부자라고 해도, 대학생 학자금 마련에, 가족들은 쌀보다 몇배로 보리쌀을 넣어서 밥을 해먹는 것도 힘들었고, 저고도 맵게 살아야 하는 게 높은 실정이었다. 어찌다 장날에 시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남한강을 배로 건너서 장에 가시는 날엔 나는 꼭 어렵고 힘들게 아버지

빨래할 비누가 없는데요. 정말로 하고싶지 않은 주문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데~ 그대 알았다. 내 잊지않고 꼭 사오마. 하지만은 좋  
 겠지만. 언제나 환결같이. 거니든 주고 사는거 아니라고 팽팡쓰지  
마라 땅을 파 봐라 노란등전하나 하나 사오나 달갑지 않음 내 요청에  
 그 언짢다 라는 말씀은 나는 또 어쩔수없이 주눅이 잔뜩들수밖에~  
 나는 내 나뭇대로 머리써서 비누장을 세워서 한번 비누칠 된곳에 두번이  
 칠해지지 않도록 아끼며 마지막 비누 부스러기도 양과망에 넣어서 다시쓰고  
 아무리 노력하여 그 기간을 늘려 보려고 애를 애를 써 봐도 농사일에  
 여칠씩 입은 식구들의 빨래를 빨아 대려면 야속하게도 석장 밖에 안  
 사오시는 그 빨래 비누가 너무너무도 빠르게 닳아지곤 했다. 지음이야  
 어느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편하게, 얼마든지 쓸수 있는 형편이  
 됐지만, 습관처럼 비누를 세워서 사용했고, 비누조각을 모아서 양과망  
 에 넣어서 쓰고있는 지금에 나지신을 보면서, 습관이, 사람이 변하는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싶어서 혼자서 웃곤한다.

그 옛날 겨울날에 양말을 꿰매면서 인국희의 여성살롱을 들으면서 나도  
 양말에 얽힌 사연을 써 보내고 채택이되어서 상품을 받고 그 행복감은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의 큰 기쁨이었고, 내가 자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수있는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까지 생겼었다. 어쩌다가 내가 보낸 사연이 방송에 나오는걸 듣고 동네사람들은 내가 고등학교 출신일줄 안다. 이제는 시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셨고. 시동생들도 다 결혼하고 내 자식들 셋도 대학공부마치고 결혼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되돌아보니 농사일에 해가적드 오지않는 옴마 대신 어린지네들끼리 놀다가 재가지니 여섯살 큰딸애가 김치하나 밥 한그릇 떠다가 마루 끝에 놓고. 세 아이가 봉담에 선채로 밥 한술씩 먹고. 쪼쪼꼬질한 모습으로 마루에 간신히 올라가서 널부러져 자고 있는 모습보고. 저녁늦게 돌아온 내 마음은, 이영마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데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마음이 짝 하게 아픈데 마신 나가셨다가 순이어나 하게 취하신 아버님이 때문안에 들어서시면서 느닷없이 너 가거라 이젠 그만가거라 버려 온 소릴 치셨었다. 얼마전 이웃아주머니가 아버님이 마실 버가여서 우리며느리만 가면 우리 아들 지금도 색시랑가 보낼수 있디 우리 아들은 바보같이 지 마누라 한번 파보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준 그아주머니의 속사정은 지금도 알수없지만. 순간 뇌를 거치지 않고. 확

튀어나온 말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달라구요 물가게해줘  
보따리만 싸가지고 가면 되지. 보따리만 사서 가라구요. 저쪽에 형님이  
보따리만 싸서 오면 좋겠어요? 왜? 우리 딸이 내가 중학교 까지  
갈렸는데 ~ 내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면 남에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지 나도 우리 엄마 한텐 금쪽같은 자식이라구요. 자식  
 이사네 못사네 해도 다들 거러서 잘 살게 해주는게 부모도리이구  
 역한이지. 어째서 허구한날 그러실수가 있느냐고 난 신들린 것처럼  
 참았던 말들이 저절로 쏟아져 나왔다.

아버님은 너 바보인줄 알았더니 말 잘 하는 변호사구나 더 이상은  
 다름은 진진되지는 않았다. 속이 병 들리는 내 기분이었다. 농사할  
 끝내고 소몰고 늦게 들어온 남편 보기도 민망하고,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나도 자식을 구하면서 ~ 잘 참고 견뎌온 보람도  
 없이 ~ 그 다우런 짚뽀하게 아버님도 날 못 배웠다고 가라는 소릴  
 늘 입에 달고사시던 구박도 멈추고 다신 그런말씀 안 하셨다.  
 대학교만 졸업하면 더 이상은 바라지 않겠다던 시동생은 남편  
 예물시계 대신 준 다던 시동생 약속도, 니시동생들 대학만 마치면  
 이땅 다 너 줄 거라던 아버님의 약속도 지켜진 건 너무것도

없었고, 약간의 재산을 받아서 가방끈 짧은 내 한이 자식한테  
까지 대물김 될까봐 참 열심히도 치열하게 살아왔다.

십년전 이웃아주머니가 손녀딸 교복문제로 눈물을 글썽일 때에 내  
바상금을 털어서 교복값을 내준 기쁨도 잊었고.

핸드폰으로 농사일 하면서 늘 여성시대에서 인생살이 강의들  
들으면서 내 마음을 환상 시키며 내가 짐을. 내 주변을 돌아  
보는 마음의 여유도 키우고 있다.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아버님도 밑공살에 조심부담하시고 자수성가  
하셨서. 남들보다 더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셨으니 아버님 자신이  
열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싶고. 또 오직 절약만을 미덕으로 여기  
시며 사셨기에 나 또한 그것을 지표를 모는까지 열심히 살아올수가  
있었을 것이다.

늘 마신 나가셨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오시면 너들은  
밥을 벌여다 주어도 죽도 못 끓여먹을 인간들이다 걱정 걱정  
하셨지만. 저도 살림을 어만하면 아버님이 들켜 땅 몇배로  
불러왔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기뻐하실듯싶다.

지나간 겨울 방학때 중학교 2학년인 손녀딸이 문장을 보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갯섬으로 살기로 했어요. 갯섬  
이런 모험적이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인생을 일컫는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강의도 듣고 영어 공부도 했는데 엄청 부듯해요!」  
나도 답장 문자를 보냈다.

「내 소중한 손녀딸! 너의 그 훌륭한 다짐을 이 할머니가 응원한다.  
내 손녀딸! 언제나 화이팅!」


평뚱 「감사합니다 할머니」 또 답장이 왔다.

손녀딸이 알려준 갯섬의 의미가 맞다면, 나는 40년을 갯섬으로  
살아온 셈인데, 이 갯섬 여행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알수없지만,  
낮은 여행동안은 남편과 5대 영양소 잔챙이 먹고, 하루런시간  
걷기운동과 스트레칭, 간단한 요가를 병행하면서 조금 늦었  
지만 전강을 철저하게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몸이 아파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낮은 여행길에 웃음꽃이 필수있도록  
노력, 노력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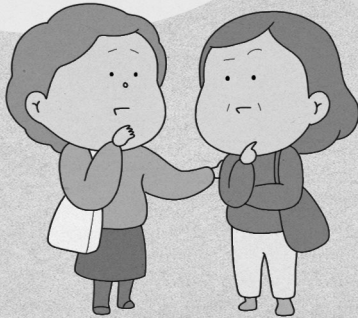
##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여성시대 가족 박목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파리 여행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가방 하나 안 사갖고 오는 사람은  
자기뿐일 거야.

...그런가



프랑스 파리를 좋아해 여행을 자주 가는 저에게  
벗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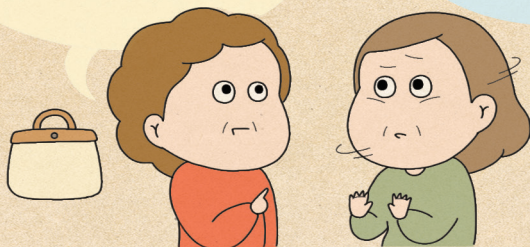
다음번 여행가서는  
한 번 구경이나 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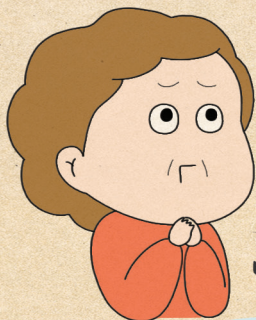
몇 달 후

파리 간다며?  
 나 가방 하나만 사다 줘.  
 모델번호는 내가 가르쳐 줄게.

안돼요.  
 세관 신고하고 그러는 거  
 번거로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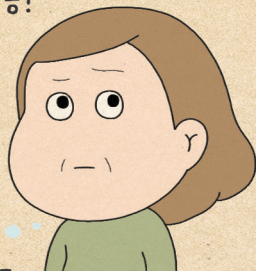
부부동반 모임에서 만난 이의 부탁이 꼭 명령 같다.



아유 다 방법이 있어요.  
 상표 다 떼고 들고 다니다가  
 나한테 갖다 줘요.

내가 수고비는 줄게  
 법도 근사하게 살게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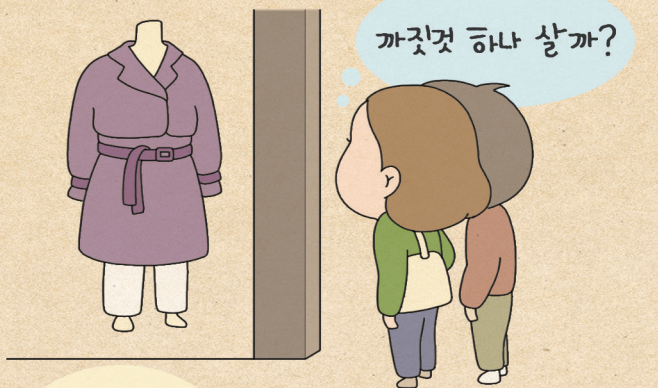
흥집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흑여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도둑이라도 맞으면?



하는 걱정에 결국 거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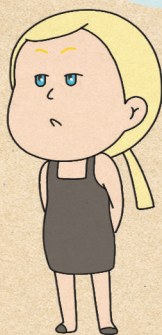
여칠 뒤 파리로 온 나는  
시내를 걸다가 색 좋은 트렌치코트가 전시되어 있는  
매장 앞에 멈추어 섰다.



진열되어 있는  
트렌치코트 가격이  
궁금한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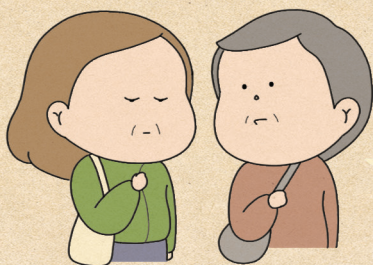
천 유로입니다.



사뭇 냉담한 매장 직원의 반응에  
나도 모르게 작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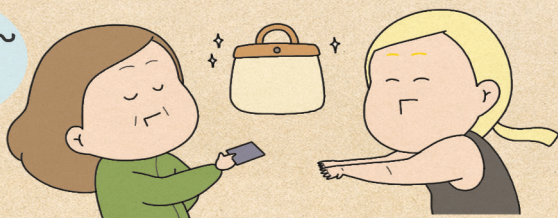
순간 여행에 지치고 겹겹이 그을린 화장기 없는 나의 얼굴과  
 짐을 버리기 위해 입다 버리고 올 요량으로 경친  
 나의 차림이 신경 쓰인다.



저런 보라색은  
 매일 입으면 질릴 것 같아  
 그만 나갈까?

괜히 초라한 마음이 들어  
 차라리 그 부탁을 들어줬더라면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저거 주세요~  
 돈은 여기



별 과장한 생각까지 드는 걸 보니  
 명품이란 것이 과연 요물인가 보다.

명품 따위 없어도 그만이다.

나에겐 여행 욕심을 모두 채워주어도 끄떡없는  
 탄탄한 체력이 있으니 이게 바로 명품이지 뭐람.





#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산업용 제어기 1위 기업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거래고객

**(주)크래비스 황준현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산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산업 환경과 시스템도 급변하고 있다. (주)크래비스는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산업화 제어기 및 산업용 머신비전 카메라를 개발해 출시했다. 당장의 이익보다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으로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가는 크래비스의 내일이 기대된다.

크래비스는 산업용 제어를 개발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던 황준현 대표는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9월 크래비스를 설립했다. 산업용 제어기 분야에서만 20여 년이 넘게 연구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크래비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산업용 제어기 기술력 1위 기업

이라고 자부합니다. 국내 최초로 산업제어의 핵심기술인 필드버스 상품화에 성공하였고 외국 선진업체에 공급하는 성과를 통해 높은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ISO9001 인증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공인받았으며 해외에서는 CE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업계 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양하고 통합적인 필드버스 솔루션



을 확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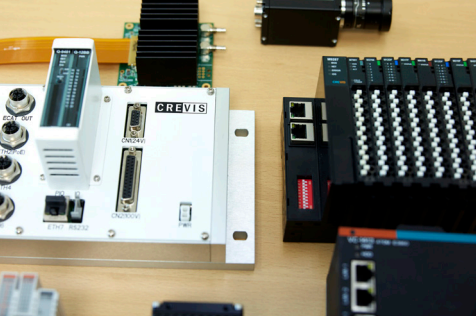
크래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리모트/I/O’ 제품을 비롯해 여러 해상도와 속도를 지원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 및 센서가 적용된 ‘산업용카메라’, 산업용 컨트롤러 기반의 ‘비전 시스템’ 등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리모트/I/O는 국내 최초 슬라이스 타입의 필드버스 네트워크 I/O 제품으로 다양한 제어 어플리케이션 지원이 가능하고 터미널 블록 분리 구조로 핫스왑을 지원하여 뛰어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

용 규격에 따른 필드버스 솔루션으로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과 환경에 따라 맞춤형 자동화 구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제품들이 산업용 제이기 업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차단되어 국산 제품에 눈을 돌린 관련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력에 반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술지원과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크래비스는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전에 천만 불 수출 탑을 달성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우수한 인력 수급은 중소기업 공통적인 난제다. 크래비스는 기술력이 핵심이다 보니 120여 명의 직원 중 40%가 연구 인력이다. 연구 실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데 우수 인력의 영입이 쉽

지만은 않다. 황준현 대표는 '실패에는 관대하고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이라며 우수 인력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100년 기업을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지만 위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잘될 때 더 많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한 번에 쓰러지지 않는 내실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임동영 지점장은 “크래비스는 산업용 제어 기 국산화 선두기업으로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라며 “외국 제품이 장악한 업계에서 국 산화를 통해 역수출을 이룬 대단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덧붙여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 가는 크래비스의 앞날에 IBK기업은행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래비스가 어떤 대내외적인 위기가 와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나아가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주)크래비스 황준현 대표와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임동영 지점장

### ① (주)크래비스 황준현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2.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3. 우수 인력을 영입하라.

#### (주)크래비스

대 표 황준현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29-4  
 전 화 031-899-4599      홈페이지 <https://www.crevis.co.kr>





# 음악과 기술의 융합으로 1인 1악기 시대를 선도하다

IBK기업은행 영창동지점 거래고객  
**(주)엘프프로페셔널 유영재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엘프프로페셔널은 35년간 미디프로세서 개발에 힘쓰며 1인 1악기 시대를 선도해 왔다. IT와 음악의 융합으로 기술 개발에 힘쓰며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엘프프로페셔널은 고객 곁에서 늘 변함없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엘프프로페셔널은 1988년 설립한 미디프로세서 전문 제조 기업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데 필요한 반주기를 전문으로 개발한다. 신화 속 요정 엘프를 모티브로 회사명을 지은 유영재 대표는 창업 첫째 미디프로세서 E-101을 개발해 출시하였고 첫 제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시 프로페셔널한 악기 반주기가 필요했던 밤무대 종사자와 악기 전공자들이 많이 구입한 덕분에

다. 이후 5년 간격으로 모델을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하였고 찬양반주기, 가요반주기 등도 개발하여 출시했다. 특히 클래식, 대중가요, 종교음악 등 여러 분야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반주 음원은 물론 악보, 연주 및 음악교육 동영상 등이 탑재되어 있고, 터치스크린 지원부터 블루투스, 기타와 마이크 이펙터, 스마트폰 원격 조종 기능 등 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



된 E-919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엘프프로페셔널의 으뜸 제품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유영재 대표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악기 연주 경험의 접목하여 미디프로세서를 개발했다. IT기술과 음악이론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이 쉽지 않은 않았다. 악기마다 연주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기 악보와 반주법이 다르다는 것도 제품 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경쟁업체가 생겨도 오랜 기간 업계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많

지 않다. 지금도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엘프프로페셔널은 오랜 시간 업계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업력만큼 오랜 시간 노하우와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경쟁사들이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 혼자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 생산까지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전문 인력을 갖춰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AS센터를 통해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도 철저



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1악기 시대를 맞아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엘프프로페셔널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CBS 방송국과 함께 아마추어 가스펠 색소폰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10여 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공연의 장을 마련하고 외국 유명 아티스트를 초대해 내한 공연을 개최하여 공연 예술 문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콩자반쇼’를 개최하고 ‘콩자반 가요제’를 열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항상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담당 직원들이 전국 대리점을 순회하며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력과 콘텐츠를 보완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고객들의 신뢰를 잘 쌓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IBK기업은행 영창동지점 고정진 지점장은 “엘프프로페셔널은 1988년 창업 이후 꼭 IBK기업은행과만 거래하며 많은 기쁨과 어려움을 함

께해 온 가족 같은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외환 거래 및 기업의 각종 금융거래를 통해 서로 상생해 왔듯이 앞으로도 꼭 인연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하자”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영창동지점 고정진 지점장(왼쪽)과 (주)엘프프로페셔널 유영재 대표

### ❗ (주)엘프프로페셔널 유영재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음악과 기술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다.
2. 공연 예술 문화에 기여하다.
3. 고객들의 요구를 들어라.

#### (주)엘프프로페셔널

대표 유영재  
전화 02-742-0923

주소 서울시강서구 허준로 217가양테크노타운 705호  
홈페이지 <https://m.elf.co.kr/>



## 또 다른 세상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두어 번 빠지고 피를 부리면 운동은 금세 멀어지지만, 그렇게 빼먹고도 버릇처럼 몸을 재촉해 끌고 가면 언제 결석했냐는 듯 멀쩡히 잘 해낸다.

불 때마다 기분 좋은 친구가 요즘 통 안 보이길래 물어 보았다.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집에 갔단다.

“무얼 했길래? 아~ 서산 개심사로 왕벚꽃 구경 간다더니 다녀왔나 보네.”

내 말에 다들 환하게 웃었다. 같이 갔다운 분이 분홍 왕벚꽃 송이가 이렇게나 크고 탐스럽다며 크기만큼 손가락을 말아 보인다. 너무 예뻐단다. 운전을 맡은 친구는 오래 운전한 값으로 다리에 쥐가 났단다.

집에 와서 SNS로 개심사를 찾아보니 청벚꽃, 곱벚꽃, 왕벚꽃이 유명하고 4월 말~5월 초가 절정인데 문수사 왕

벚꽃도 아름답다. 화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다니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여성시대 당당이들이 보내주는 사진 속 고운 꽃과 풍광을 보는 게 요즘 힐링이다. 가끔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시청하면 내가 여행했던 곳도 나오는데 실제보다 TV로 보는 편이 훨씬 편하고 좋다.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는 전국 섬에 흩어져 있는 섬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백섬백길> 프로젝트를 완료해 홈페이지를 열었고 대한민국 섬길 종합안내소가 생겼다고 고지했다. 대한민국 섬길 중에서도 건기 좋은 길만 100개를 선정했다는데 가끔 강제윤 선생의 SNS를 보며 섬과 해산물 사진으로도 그곳에 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섬 음식 강연도 다니신단다. 얼마나 부러운지!

중2 때부터 알던 친구도 많이 걷고 여러 군데 다녀서 부러운 이들 중 한 사람인데 서울 둘레길 중 북한산 코스만 남았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그간 걸은 둘레길 중 수락산 불암산 코스가 가장 맘에 든다고 했다. 평지만 연속이면 지루하고, 계단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임도가 길게 끼

어 있어도 안 좋는데 수락산은 숲길과 산길이 조화로워서 좋단다. 소나무도 자주 보이고, 멋진 풍광에 시야가 탁 트이면서 동시에 전철역 접근성이 좋아 힐링 코스로서 좋다고 했다. 이 친구는 되는대로 그때그때 편안하게 골라 걷는 듯한데 서울숲, 수원화성, 동네 뒷산, 단국대 캠퍼스 안, 봉은사 홍매화 명상길, 분당중앙공원, 백운호수, 양재천, 남한산성, 잠실 석촌호수, 산 하나를 개나리가 휘덮고 있는 응봉산, 광고 저수지 벚꽃길, 국립현충원, 불곡산, 청계산 등의 사진을 부지런히 찍어 올린다.

아무려면 직접 내 발로 걷는 게 최고인 줄 누가 모를까 해도 대리만족과 힐링이 동시에 되는 요즘 SNS가 새삼 고맙다.





## 눈을 보고 말해요

김일종 | 여성시대 진행자



실오라기 두 개가 왼쪽 눈에 떠다니기 시작했다. 눈을 비벼 봐도 안약을 넣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야를 방해한다. 결국 안과를 찾아갔고 비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노화의 일종이란다. 노화라니 일단 맘이 상했는데 치료 방법이 딱히 없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단 얘기에 울적해졌다.

그렇게 2주가 지날 즈음 갑자기 왼쪽 시야가 뿌옇게 변했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전에 왔을 때 보였던 망막 쪽 상처가 결국 벽지 뜯기듯 구멍이 났단다. 망막박리. 난 그렇게 생소한 진단명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았다.

그간 살아오면서 내 눈에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중학교 때부터 근시로 인해 안경을 써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렌즈를 껴고, 방송국에 입사하면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다. 자기



만족을 위해 쌍꺼풀 수술을 한 번, 욕심을 더해 두 번. 그리고 40대엔 망막박리증 수술까지.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란 속담처럼 정말 나의 눈은 비싸다. 우리 몸 중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평소에 관리를 잘하지 못한 탓일까. 이번에는 눈이 주는 경고가 꽤 세다.

수술은 한 시간 정도로 금방 끝났지만, 그 이후 나의 일상엔 모두 멈췄다. 망막의 회복을 위해선 최대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있어야 한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순간을 제외하고 계속 고개를 들지 않고 엎드려 있었다. 잘 때도 구멍 뚫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잤다. 아니, 계속되는 불편함에 밤새 뒤척였다.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어쨌든 시간은 간다.

엎드려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부터 여러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까지. 하지만 라디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위로와 재미와 감동과 노래를 건네주었다. 엎드려 귀를 연 채 맘껏 라디오를 들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제대로 깨달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성시대 진행자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돌아간다면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리라. 이번엔 얻게 된 가장 큰 다짐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상황에 썩 어울리진 않지만, 여성시대 복귀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20  
24

6.8.(토)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이  
브  
K

FESTIVAL

JAY PARK ● DYNAMICDUO  
LOCO ● GIRIBOY ○ CHUNG HA  
LEE YOUNG JI ○ HAN YO HAN  
OVAN ○ HOLYBANG ● MVP

자세한 사항은  
QR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IBK 기업은행

#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BOX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2024-4560호(2024.03.20) 유통기준(2023.03.19) · 대출통로 BOX 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6-7633) 혹은 IBK고객센터(1544-2569)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에 관련된 분야에 불이익을 수 있습니다. · 통장기간 대출 완료를 면제할 경우, 모든 완료를 반복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회금이 부정확한 경우(잔액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불고, 담보충족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유지 부작위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환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첨 가격 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한 해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